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30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COVER STORY
뮤지컬 '팬레터'

ART COLUMN
어둠을 위한 빛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Fan Letter

July 2022
Vol.367

7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 시작 HAMLETIQUE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구성/재창작/연출 강태욱

2022. 7. 15 금 - 7. 17 일 평일 19:30 주말 17: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출연 이현주 황창기 김은희 이혁우 염지선 오희경 채민수 김은옥 서보기 이태성 우성주 김희수 윤영식 이수연 박미서 윤준기 강승환 예술감독 김지용 조연출 이병길 무대디자인/제작 황경호(라쿤스테이지)
움직임연출 홍충민 조명디자인 조세현 음악감독 전현미 음향감독 주호일 의상디자인 김현진(반올림) 분장디자인 이지원아트센터 영상디자인 이현우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홍보 박지현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예매 | www.bscc.or.kr 문의 | 051-607-6000 (ARS 1번)
티켓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중학생이상 관람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일향악 세계기

부산 국악칸타타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창 김해시립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무용 부산시립무용단
지휘 김종욱
연출 이정운
작곡 김은혜
작시 이청산
안무 서정숙
여창 정선희
남창 최용석
소프라노 김유섬
카운터테너 이희상
바리톤 강경원

'부산을 노래하다'

언제 하늘이 열린 적 있던가?
풍요로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오늘
보이지 않는 것에 절대성이 무너져버린 오늘
언제 사람을 본 적 있던가?....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메시지

프로그램 I. 신화
II. 사람살이
III. 변란의시대
IV. 꽃 한송이 (만파식적)

2022. 7. 8 FRI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2

8th

을숙도 오페라축제

2022. 7. 1. ~ 7.30. | 을숙도문화회관

개막작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 오픈씨어터

말뚝이 가라사대 부산캄머오페라단

마술피리 부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팔리아치 드림문화오페라단

폐막작 **라 보엠** 오페라단 나눔

Eulsukdo Opera Festival

Busan Symphony Orchestra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ubscription Concert

53rd

PROGRAM

본 윌리엄스 푸른 옷소매 주제에 의한 환상곡
Ralph Vaughan Williams Fantasia on Greensleeves

핀치 클라리넷 협주곡 c단조 작품31
Gerald Finzi Clarinet Concerto in c minor, Op.31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A장조 작품90 '이탈리아'
F. Mendelssohn Symphony No. 4 in A Major, Op.90 'Italian'



2022.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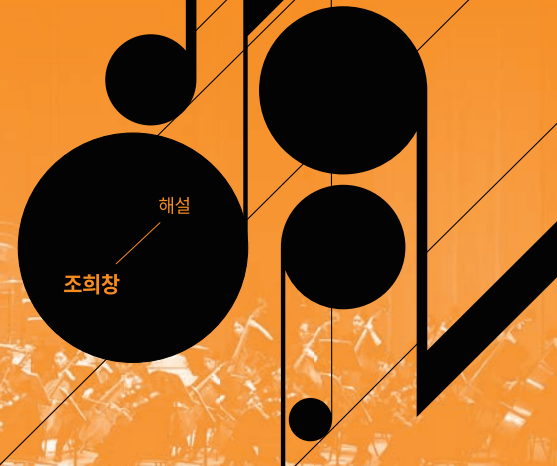
Sun 7: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오충근(지휘) Choong-Keun Oh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협연
백동훈(클라리넷) Dong-Hoon Paik



해설
조희창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경북대학교  (주)와인테크놀리지  noblesse  논시원 안과  남산정 요양병원  B&C PVD COAT(주)  영신치과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입장권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전석 학생 50% 할인)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 본 공연은 2022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Summer
Fantasy
時間Ⅱ
시간Ⅱ

지휘 임희준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2310밴드 THE STRING PLAYERS

Lazenco, Save Us · Welcome To The Real World · 재즈카페 · 그대 내맘에 들어오면은 · 찌니아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 무조건 · 인연 · 녹턴 ·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 테스형! · 용두산 엘레지 · 시간 · 여러분 · 빛 · Show

2022. 7. 21 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NTENTS

07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조대 July 2022 Vol.367

2022년 7월호 통권 367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박철호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6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08 Column

어둠을 위한 빛

10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팬레터'

14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⑫

코로나 팬데믹 종식 즈음에 돌아보는 과거

18 세계오페라축제 ⑥

가장 작은 규모로 최고의 무대 선사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22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큰지붕 밑에서 편하게 만나요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26 Preview

32 Issu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
제17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40 Review

44 Program Guide

59 New Book

60 BSCC News

SUN	MON	TUE	W
<p>공연</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명작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7월 2일(토)-8월 28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11:00 공연 단체 관람) ■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2세 이상 입장 가능)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RS 1번)</p>	<p>부산문화회관 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라이프 앤 조이 7월 9일(토)-10월 30일(일)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 7월 8일까지 얼리버드(50% 할인) 티켓 판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입장마감 오후 6:00) ※ 매주 월요일 휴관(공휴일 8/15, 9/12, 10/3, 10/10 정상 운영) (주)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p>	
<p>3</p> <p>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11:00, 14:00, 16:00 대 전석 6만원(만 24개월 이상) (주)뱅크브릿지(1533-7446)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함께하는 '사계' 17:00 중 8만원·5만원·3만원/KNM방송교향악단(950-9568) 음악실험실 짜임 정기연주회 'New Solo Pieces with Strings II' 17:00 첼 전석 1만원/음악실험실 짜임(010-8212-0222)</p>	<p>4</p>	<p>5</p> <p>부산시여성합창페스티벌 17:00 대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338-5594)</p>	
<p>10</p> <p>론 브랜튼의 서머나잇 재즈 콘서트 16:00 중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담당관실(888-4664)</p>	<p>11</p>	<p>12</p> <p>부산예술고등학교 제33회 무용정기공연 17:00 대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5-8106)</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향악단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공연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그림콘서트) '로마의 사랑' 공연 첼 전석 1만2천원/(재)부산문화회관</p>
<p>17</p> <p>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전국투어 17:00 대 9만원·7만원·5만원 (주)스튜디오뮤직(02-2658-3546) ◇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 시작 HAMLETIQUE' 17:00 중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8</p>	<p>19</p> <p>제이아트앙상블 어울림 콘서트 '2022 행복 투게더! 두 개더! 두배더!' 19:30 첼 초대 제이아트앙상블(jartensemble@naver.com)</p>	<p>20</p>
<p>24</p> <p>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3회 정기연주회 19:00 대 3만원·2만원·1만원/(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p>25</p>	<p>26</p> <p>브리즈온 앙상블 음대 바람 시리즈 2 19:00 첼 브리즈온 앙상블(761-4391)</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남량특집-미스테리' 공연 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p>
<p>31</p> <p>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2_부산 앙코르 15:00 대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라이브러리컴퍼니(070-4190-1289)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17:00 중 무료/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9322-1754)</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1	2
		MBC부산음악콩쿠르 16:00 중 부산MBC(760-1121) 함께 부르는 1절 가곡제 19:30 첼 전석 1만원/루체태음악연구소(513-1009)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11:00, 14:00, 16:00 대 전석 6만원(만 24개월 이상) (주)씽크브릿지(1533-7446) 부산신포니에타 제102회 정기연주회 '부산신포니에타&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 18:00 중 전석 2만원/부산신포니에타(010-8519-0448)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독창회 '인생을 노래하다' 17:00 첼 초대/박소연(010-5897-0388)
6	7	8	9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 국악칸타타-일향악 세계기' 19:30 (특별 초청공연) 대 초대/(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최유리 해금 아홉 번째 '시대별 해금 창작곡 흐름에 대한 이해' 19:30 첼 초대/최유리(010-3994-4674)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 국악칸타타-일향악 세계기' 19:30 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19:30 중 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더 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Nostalgia' 17:00 대 3만원-2만원/(사)더 솔로이스츠(516-5999)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14:00, 18:00 중 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14	15	16
국악공연 '악' 10:30, 14:00 사업팀(607-3113) 기획 전진경의 아트살롱 '여름 햇살' 11:00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14:0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김해리 피아노 독주회 19:30 첼 전석 2만원/클라시코(02-775-860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양역'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 시작 HAMLETIQUE' 19:30 중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전국투어 17:00 대 9만원-7만원-5만원/㈜스토펙뮤직(02-2658-3546) ❖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 시작 HAMLETIQUE' 17:00 중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연계특강 '앙리 마티스, 20세기 현대미술의 문을 열다' 14:00 첼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0	21	22	23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_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19:3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W.C.W.S 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19:30 대 5만원-4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립무용단 Dancers and Masterpiece_ '별이 빛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20:0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립무용단 Dancers and Masterpiece_ '별이 빛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17:0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포르투나양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17:00 첼 전석 2만원/부산문화(1600-1803)
7	28	29	30
단 특별연주회 음악회' 19:30 산문화회관(607-6000)	바리톤 허중훈 독창회 19:30 첼 예술기획점마(010-3187-7978)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2 부산 앙코르 15:00, 19:00 대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라이브러리컴퍼니(070-4190-1289)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With' 16:00, 19:30 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3</p> <p>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6대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악문화예술교류 축제 17:00 대 (사)부산국악협회(644-5211)</p>	<p>제34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7월 12일(화)-7월 15일(금) 제1전시실 (사)부산사진작가협회 631-4111</p> <p>WHO IS X 7월 30일(토)-7월 31일(일) 제1, 2전시실 SHUMATION 010-8948-5578</p> <p>부산시민회관 전시실</p>		
	4	5	
	11	12	1
	18	19	2
<p>24</p> <p>심규선, 유승우 콘서트 18:00 대 ㈜블리스이엔티(010-3273-4004) 현대무용단 자유 '(+82)그대, 안녕하십니까?' 16:00 소 전석 2만원/현대무용단 자유(010-8541-3428)</p>	25	26	2
<p>31</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팬레터' 15:00 대 9만원-7만원-5만원(14세 이상 관람가)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2022년 배시시 명품극장 '보물섬' 15:00 소 무료(지정좌석제)/(재)</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1	2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제1회 부산버스킹페스타' 15:00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6	7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_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10:30, 14:00(평일 단체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_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10:30(평일 단체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9 ◆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_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15:00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14	15	16
10	21	22	23 2022 이승환 콘서트 '우리 그때_1989-1991' 17:00 Ⓣ 14만3천원·12만1천원 (주)블리스이엔티(010-3273-4004)
17	28	29	3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팬레터' 18:00 Ⓣ 9만원·7만원·5만원(14세 이상 관람가)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2 문화가 있는날
 물심 19:00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어둠을 위한 빛

이상현 춤 비평가

예술에서 빛이 갖는 비중은 매우 큼니다. 서구 회화에서 빛의 역할 변화는 미술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가 나타나면서 빛은 대상의 입체감과 현실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입체감과 현실감은 회화의 평면을 숨겨 보는 사람이 마치 3차원 현실의 대상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림이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화가가 필요한 빛은 현실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작품에 필요한 빛을 화면 안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자연의 빛과 상관없이 작가의 의도대로 조작한 빛입니다. 이런 경향은 오래 이어지다가 19세기 인상파 등장으로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인상파의 선구자로 불리는 마네는 회화에서 화면 내부의 빛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풀밭 위의 식사>, <올랭피아>, <피리 부는 소년> 등을 불편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작적인 빛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에서 빛을 받는 상태로 그린 그림에서 오히려 현실감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인상파 이후 빛이 더는 회화를 좌지우지하지 못했고, 빛은 회화 표현에서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회화와 비슷하게 대상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사진과 영상(영화)은 전적으로 빛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화를 빛의 예술이라고도 말합니다.

공연예술에서 빛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연희 탈춤이 지금은 대낮이나 무대에서 공연하지만, 조선시대 탈춤은 해가 질 때 시작해서 새벽까지 놀았다고 합니다. 조



명은 모닥불, 햇불 같은 것으로 지금처럼 연희자의 머리 위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연희자와 같은 높이 혹은 낮은 위치에서 비추었습니다. 탈은 눈, 코, 입의 높낮이가 과장되어 있어 흔들리는 빛이 아래에서 비추면 실제보다 더 극적으로 보입니다. 서구 연극이 들어오면서 조명은 극적 맥락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빛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성격과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연극에서 조명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무용은 어떨까요? 무용에서도 조명은 연극에서만큼 중요합니다. 무용에서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을 조명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사(말) 없이 몸이 만드는 이미지 중심인 무용의 특성상 연극보다 더 조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과 빛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술에서 빛의 역할이 밝히고 보이게 하는 것만일까요? 사실 공연예술에서 빛의 밝은 부분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조명의 일차적인 역할은 대상을 비추어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만, 빛은 필연적으로 어둠을 동반합니다. 조명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 공연예술에서 필요합니다. 보통 무대 조명을 완전히 끄는 것은 주로 무대 전환을 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특정 위치만 빛이 들어오고 다른 곳을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 대부분은 조명이 들어 온 곳에 집중하는데, 어둠은 어떤 역할일까요? 밝음을 강조하기 위한 보조 역할 뿐일까요? 무대에서 어둠은 빛을 받는 밝은 쪽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부분을 숨겨 메시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또한 다음을 준비하는 분주한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은폐와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빛은 드러난 것 그대로가 대부분이지만 어둠은 보이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대에서 빛을 잘 이용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둠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연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어둠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어둠도 빛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밝은 쪽만 바라봅니다. 어둠을 부정적인 것, 공포와 연결합니다. 어둠

이 품고 있는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우선 보기 편한 밝은 면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경향은 물리적인 빛과 어둠을 넘어 우리 삶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곳을 외면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어 빛의 다른 모습인 어둠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속에 많은 것이 생명력 있게 꿈틀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소외와 배제를 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예술계만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예술계의 어둠 속 생명은 청년 예술가들입니다. 물론 부산 예술가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년 예술가가 겪는 어려움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부산을 떠나거나 예술을 포기하는 것은 부산 예술의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용 장르를 보면, 이미 부산의 대학 무용학과가 부산대학교 한 곳만 남고, 나머지는 폐과되거나 통합되었습니다. 기초예술로서 무용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기반이 흔들리면 기성 무용계도 곧이어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까지 부산 무용의 빛은 기성 무용계가 독차지했습니다. 젊은 무용가가 설 무대가 없어 이리저리 헤맬 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춤을 포기하거나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기성 무용계는 부산에 춤꾼이 없다 하고 부산 무용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만 합니다. 실천 없는 말은 공허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천이지 공허한 수사가 아닙니다.

다행히 (재)부산문화회관은 작년부터 부산의 젊은 무용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MOTI> 공연이 그러했고, 올해 <슈퍼 타이거>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것입니다. 혜택을 받는 젊은 무용가가 그리 많지 않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확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빛이 밝은 면만 있다고 주장할 때 빛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의 존재를 부각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둠을 위한 빛이야말로 진정한 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M U S I C A L

팬레터

작품성과 대중성, 화제성까지
흥행 3박자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팬레터'가
부산을 다시 찾는다.

'팬레터'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 호평받는 웰메이드 창작뮤지컬로, 지난 1930년대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상과 김유정,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고 열망했던 순수문학단체인 '구인회'를 모티브로 삼아 역사적 사실과 상상을 더해 만들어진 모던 팩션(Faction) 뮤지컬이다. 천재 소설가 김해진과 그를 동경하는 소설가 지망생 정세훈, 비밀에 싸인 천재 여류작가 히카루까지 세 인물을 주축으로,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문인들의 예술혼과 사랑을 매혹적으로 그려냈다.

관객들이 손뼉아 기다려온 바로 그 작품!

'팬레터'는 지난 2015년 우수 창작뮤지컬을 발굴하고자 기획된 창작뮤지컬 공모전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으로, 지난 2016년 초연무대 후 실제 문학작품을 인용한 아름다운 대사와 감미로운 선율,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로 '팬레터 열풍', '팬레터 앓이'를 일으키며 매진신화를 달성해오고 있다. 홍콩 영화계의 거장 왕가위 감독이 "영화로 만들고 싶은 만큼 매력적이다"며 투자 제작에 참여했으며, 2018년 한국 창작뮤지컬로서는 최초로 가진 대만공

뮤즈에게 보내는 편지



영화로 만들고 싶을 만큼 매혹적이다

홍콩 영화감독 왕가위

브랜드를 굳힌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창작 뮤지컬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

뮤지컬 '팬레터'

7월 30일(토) 오후 6:00

7월 31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 90,000 R 70,000 S 50,000

(1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연에서 2,000석 규모의 내셔널 타이중 시어터를 매진시키며 큰 호평을 받았다. 2016년 관객들이 뽑은 올해의 창작뮤지컬 1위, 2017년 창작뮤지컬 올해의 레퍼토리, 2017년 공연 통합 순위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내 공연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년여 만에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팬레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그동안 다양한 창작뮤지컬의 기획개발 및 해외진출까지 지속적으로 성공시켜 온 강병원 프로듀서와 이전 시즌에 이어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한재은 작가, 박현숙 작곡가 콤비, 그리고 세련되고 디테일한 연출의 김태형 연출가, 스토리와 캐릭터의 감정선을 섬세한 안무로 풀어낸 신선호 안무가 등이 의기투합해 '팬레터'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재현한다. 여기에 신은경 음악감독과 한문규 음향감독이 새롭게 합류해 풍성함을 더하는 깊이 있는 음악으로 작품의 정교함과 완성도를 높인다.

'팬레터'의 명성을 이어가는 매력적인 캐릭터

당대 최고의 천재 소설가, '김해진' 역에는 배우 이규형이 맡아 지난해 부산 무대에 이어 다시 한 번 부산 관객과 만난다. 2016년 초연무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 시즌 '김해진'으로 무대에 서온 이규형은 이번 무대에서도 섬세하고 안정된 연기력과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으로 한층 더 무르익은 연기를 선보인다. 시와 소설에 폭 빠져 있는 작가지망생 '정세훈' 역에는 김진욱과 윤소호가 맡아 극의 흐름을 이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안정적인 연기로 데뷔 2년 만에 타이틀롤을 도맡으며 작품마다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김진욱은 신선한 매력으로 작품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 지난 시즌 '팬레터' 무대를 마지막으로 군복무에 임했다가 2년 만에 다시 '팬레터' 무대로 돌아온 윤소호는 2년 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소년미 넘치는 외모와 부드러운 음색,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완벽한 싱크로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밀에 싸인 천재 여류작가 '히카루' 역에 소정화, 허혜진이 열연한다. 초연부터 매 시즌 함께하며, '팬레터'의 흥행신화를 이룬 소정화가 한 번 더 신비하고 매력적인 '히카루'로 분하며, 뮤지컬계를 이끌 새로운 신예 디바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허혜진이 합류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이밖에 뮤지컬 '팬레터'의 문학적 감성을 이끄는 '칠인회'의 '이윤-이태준-김수남-김태환' 역에는 앞선 시즌에도 열연을 보였던 박정표, 임별, 장민수, 김보현이 각각 맡아 작품 속의 시대 분위기와 예술적 감성을 펼친다.

김해진으로부터 온 편지

뮤지컬 '팬레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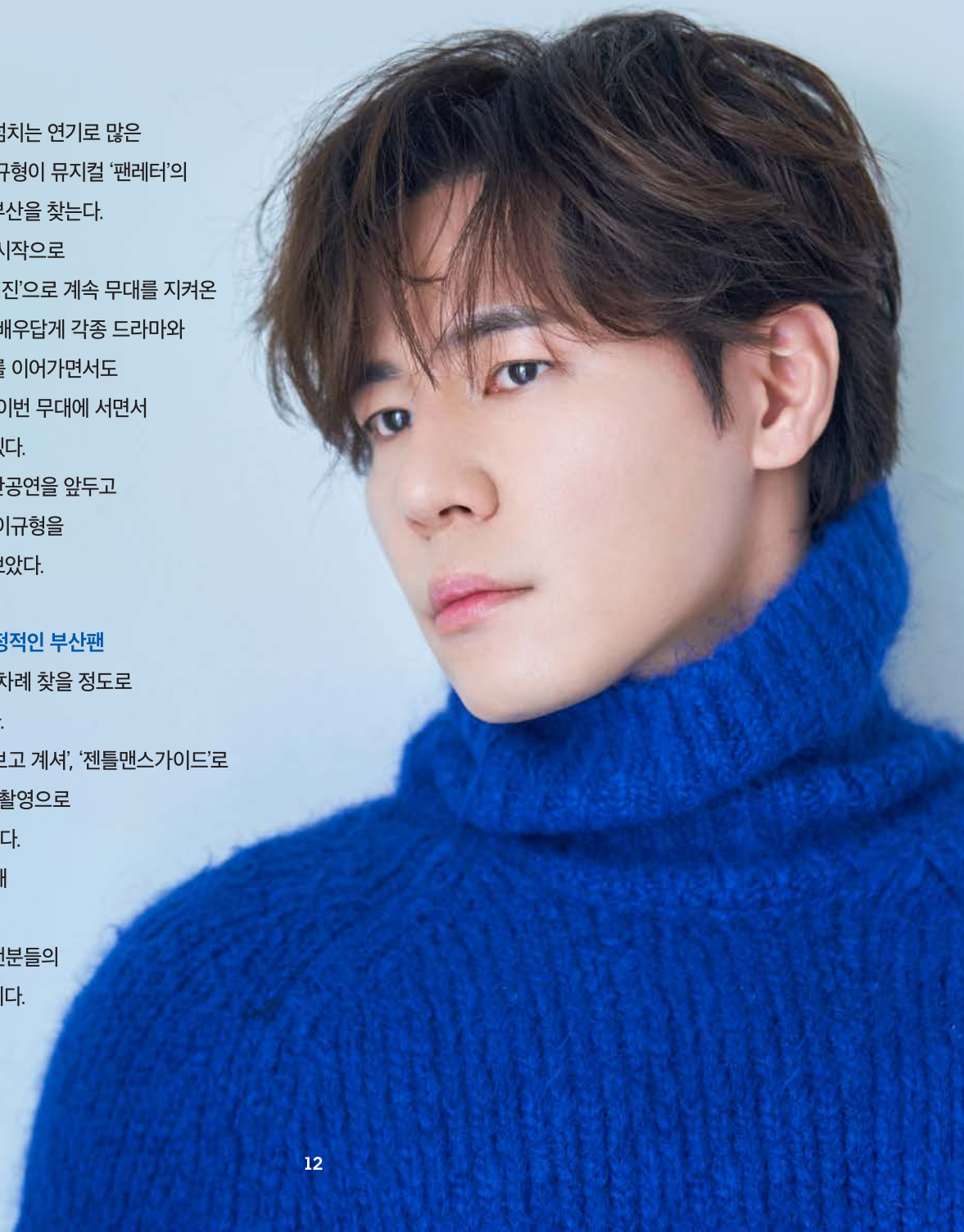
부산 찾는 배우 이규형

LEE KYOO HYUNG

특유의 섬세하고 장악력 넘치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이규형이 뮤지컬 '팬레터'의 천재 소설가 김해진으로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6년 초연무대를 시작으로 최근 4번째 시즌까지 '김해진'으로 계속 무대를 지켜온 이규형은 현재 가장 핫한 배우답게 각종 드라마와 영화 출연으로 바쁜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팬레터'에 대한 애정으로 이번 무대에 서면서 공연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7월에 예정된 '팬레터' 부산공연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규형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았다.

사랑하는 도시 부산과 열정적인 부산팬

부산은 매년, 그것도 여러 차례 찾을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예전에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젠틀맨스 가이드'로 부산 무대에 섰으며, 영화 촬영으로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팬레터' 작품으로는 지난해 처음 부산을 찾았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부산팬분들의 열정적인 면이 너무 좋습니다.



2001년 영화 '신라의 달밤'으로 데뷔한 이규형은 초기에는 주로 뮤지컬과 연극을 넘나들며 활동을 해오다 현재는 영화와 드라마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뮤지컬, 연극 작품으로는 '팬레터'와 더불어 가장 무대에 많이 선 '빨래'를 비롯해 '젊음의 행진', '사의 찬미', '여신님이 보고 계셔', '팬레터',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시라노', '헤드윅' 등이 있으며, 지난 2017년 드라마 '비밀의 숲'을 통해 대중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낸 후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는 180도 다른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소화할 수 있는 배역의 스펙트럼이 태평양처럼 넓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의 연기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특히 이규형은 2016년부터 뮤지컬 '팬레터' 전 시즌을 함께하면서 팬들로부터 '규해진'이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팬레터'는 초연 당시에도 이색적인 소재와 흥미로운 스토리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혔으며, 창작뮤지컬의 초연무대로서는 드물게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무대에 계속 설 수 있는 '팬레터'만의 매력 초연 때부터 계속 무대에 서오게 된 데는 아무래도 탄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노래가 한 몫을 했겠죠. 4차례 시즌 동안 인물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다만 늘 새로운 배우들과 호흡을 함께 하기에 그들의 새로움에 맞추려는 편입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즐거움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많이 섰지만 노래를 잘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작품에 따라 필요하면 레슨을 받기도 합니다. 대중들에게는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됐지만 개인적으로 연기하는 재미로만 따진다면 아무래도 무대가 가장 즐겁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나는 작품 하나를 꼽기란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한 작품이라면 '팬레터'와 '빨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안톤 체흠의 '바냐 아저씨'의 바냐 역으로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바냐 아저씨'는 대학 4학년 때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라 언젠가 다시 그 작품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드라마, 영화까지 기대되는 차기작 최근 디즈니의 드라마시리즈 '카지노'에서 최민식 선배님의 젊은 시절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최민식 선배님 때문에 연기를 시작했고, 선배님이 연기한 영화 '쉬리' 대사를 아직도 외울 정도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출연하여 너무 영광이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작품에 누를 끼칠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카지노' 외에도 차기작으로는 여름에 크랭크인되는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 9월에 방영 예정인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년 초 개봉예정인 코미디영화 '헛썸가이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연도 하고 싶은데 지금 고민중입니다.

이규형이 보내는 팬레터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팬레터를 보내야 한다면 최근 한국을 다녀간 축구선수 네이마르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을 제대로 만끽하고 훌륭한 경기를 펼쳐줘서 고맙다고 네이마르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컨디션을 갖춘 강팀과의 경기는 지더라도 얻은게 많기에 이번 경기가 한국 대표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방 공연을 위해 배우들이 모여 연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서울 공연이 끝난지 석달이 지났는데도 마치 다들 어제 공연을 한 사람들처럼 연기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연이 팬레터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만큼 이번 부산 무대에서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같이 연기하는 배우들이 신뢰하는 연기자라면 좋은 연기자가 아닐까 싶다”는 배우 이규형. 7월, 그가 부산시민들에게 보내는 팬레터가 어떤 내용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즈음에 돌아보는 과거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된 기간이 2년을 훌쩍 넘었다. 다시 항로가 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다. 완전한 종식은 없을 것이고 일종의 유행성 감기처럼 지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 동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강한 기억을 남겼다. 하지만 이렇게 유행성 질환에 의해서 사회가 힘들어진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꽤 많이 일어났다. 중세에 오랫동안 여러 번 유행했던 흑사병뿐 아니라, 콜레라, 결핵, 매독, 장티푸스 등 다양한 질환들이 한 지역을 혹은 여러 국가를 괴롭혔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Spanish influenza)은 코비드19처럼, 전 세계에 휘몰아쳤다.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독감

스페인독감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1917년 즈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전쟁에 영향이 갈 것을 걱정하던 1차대전 참전국의 정부는 언론을 통제했지만, 참전하지 않았던 스페인에서만 새로운 독감의 심각성을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래서 스페인독감이라는 다소 억울한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우리는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 1 세계대전 당시 병상 모습
- 2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 <빈 분리파 건물>, 1897년, 오스트리아 빈



1



지 잘 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보호를 하지 않으면 호흡기를 통해서 쉽게 전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페인독감은 불과 1~2년 사이에 유럽, 미국뿐 아니라 조선까지 상륙했다. 하나의 질병이 손쓸 새도 없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20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페인독감이 처음 알려지게 된 1918년 초여름부터 1920년 6월까지 대유행을 하면서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치가 두 배 이상 차이날 정도로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집계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독감 환자가 전쟁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가 함께 병상을 쓰면서 급격하게 퍼져갔기 때문이다. 당시 병상의 사진을 보면 커다란 막사를 짓고 그 안에 야전 침대를 두고 환자들이 병중에 상관없이 한 공간에 누워있다. **[도판 1]**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감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었다.

스페인독감이 속수무책으로 널리 퍼진 것에는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이 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도 있었다. 코비드-19 역시도 처음에는 감염력이 어느 정도인지, 바이러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작은지, 사망률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공포가 더 컸다. 스페인독감 역시 공기 중에 균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16억 명 정도의 유럽인구 중 6억 명이 독감에 걸렸

을 것으로 추정하니, 그 감염률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18년에 ‘무오년 독감(戊午年 毒感)’이란 이름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조선에 유행하였다. 조선 내에서는 740만여 명이 감염되어서 그중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스페인독감 혹은 무오년 독감으로 불리는 감기는 전 세계에 퍼졌고, 군인뿐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언제 감염될지 알 수 없고 무엇보다 이를 막을 백신도 치료할 치료제도 없었다.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 분 팬데믹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혁신적인 미술을 이끌어가고 있던 두 화가도 스페인독감을 피하지 못했다.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은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되고 있었다. 프란츠 요제프 1세(Franz Joseph I, 1830-1916)의 주도하에 하수도와 도로를 정비하면서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예술과 디자인을 만들고자 유겐트슈틸(Jugendstil) 양식의 작품이 속속 발표되었다.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미술운동을 해보고자 한 오스트리아의 젊은 화가, 조각가, 음악가, 문학가, 건축가 등이 모여 ‘빈 분리파(Wien Secession)’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첫 전시를 한 후 대성공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897년 건축가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Joseph Maria Olbrich, 1867-1908)의 설계로 독특한 빈 분리파 건물을 지었다. **[도판 2]**



3 클림트, <키스>, 캔버스에 유채, 180x180 cm, 오스트리아 빈 벨베데레 미술관 소장

4 실레, <가족>, 1918년, 캔버스에 유채, 152x162.5cm, 오스트리아 빈 벨베데레 미술관 소장

5 뭉크, <절규>, 1893년, 나무에 템페라, 83.5x66cm, 노르웨이 오슬로 뭉크미술관 소장

현재도 빈에서 분리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이 건물은 하얀색으로 단순하게 장식된 건물에 금색의 잎들이 만들어내는 구가 없어져 있는 독특한 형태를 띤다. 이렇듯 과거에 없는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면서도 자연에서 연유한 장식을 결합한 것이 분리파의 특성 중 하나이다. 그리고 빈 분리파의 전성기를 이끈 이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이다. 화려하고도 장식적인 화면으로 된 <키스>(1907) ^[도판 3]로 유명한 클림트는 특히 여성의 모습을 매혹적으로 표현해서 당시 귀부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을 과감히 깨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젊은 예술가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클림트가 56세에 뇌졸증이 왔고, 입원한 병원에서 스페인독감마저 걸리게 되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8개월 후 빈 분리파에는 또 다른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클림트가 재능을 알아보고 일찌감치 빈 분리파와 함께했던 28세의 젊은 화가 에곤 실레(Egon Schiele, 1890-1918)의 죽음이었다.

두 화가가 만난 것은 실레가 17세로 빈 예술학교 학생이었을 때였다. 당시 클림트는 이미 빈 분리파를 이끈 유명한 화가였다. 클림트에게 그림을 평가받고 싶어서 실레는 용기있게 다가갔고, 클림트는 젊은 미술학도의 그림을 보고 한눈에 그 능력을 알아봤다. 그리고 얼마 후 미술계에 등단시켜주었다. 둘은 서른 살 가까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지냈다. 독특한 예술세계를 가진 실레는 이른 나이에 유명세를 떨쳤다. 그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다소 선을 넘는 에로틱한 그림으로 법정에서 기도 했다. 하지만 악명 역시도 유명세의 하나이니, 젊은 나이에 화가로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졌다. 비록 여성편력도 클림트 못지않게 심했지만, 에디트와 결혼을 한 후에는 부인을 아꼈고 더불어 아이를 갖기를 바랐다. 그리고 젊은 부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이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실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래에 만들어질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도판 4] 자신과 부인은 누드로 표현하고 그 앞에 담요에 싸인 아기를 앉혔다. 아이를 엄마가 감싸고 엄마를 아빠가 보호해주는 모습이다. 왼팔을 다소 길게 그려서 직각으로 만드는 포즈는 실레가 자화상을 그릴 때 자주 취하던 자세이다. 전체적으로 실레 특유의 거친 붓질이 드러나지만,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감추지는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의 모습을 그렸을까. 당시에는 초음파 진로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실레는 태어날 아이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자신의 어린 조카를 그려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 그 정도로 아이가 보고 싶었고 아

빠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임신한 에디트가 스페인독감에 걸려버린 것이다. 딱히 치료법이 없었기에 에디트는 병을 그대로 앓다가 결국은 사망했다. 그리고 쉴레 역시 간호를 하면서 독감에 걸려 며칠 후 사망하였다. 세계대전 시기, 잠시 붓을 내려놓고 전쟁에 나가 사망한 화가들도 있었다. 그들의 예술이 끊어진 것이 슬픈 만큼, 클림트와 쉴레의 예술이 멈춘 것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 역사에 만약이 없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예술을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팬데믹을 극복한 화가

스페인독감으로 유명을 달리한 화가도 있지만 이를 이겨낸 화가도 있었다. 그는 바로 <절규(Skrik)>로 너무나 유명한 노르웨이 화가 몽크(Edvard Munch, 1863-1944)이다. 몽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과 죽음은 항상 함께했다고 말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까지 어린 나이에 죽었다. 몽크 자신도 심약해서 의사인 아버지가 탐탁지 않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몽크의 그림은 대부분 격렬하거나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 <절규> 역시 산책하다 들린 산과 자연이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고 그린 그림이다. <절규>는 감정 그 자체만이 드러난 그림이다. 몽크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에 예민했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도판 5]**

평생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했던 몽크이지만 전 세계에 유행하는 스페인독감은 극복해내었다. 젊지만은 않은 나이였지만 몽크는 평상시 건강에 유의한 덕분인지 극심한 고통을 겪기는 했어도 병을 이겨내었다. 그리고 기념으로 독감을 이겨낸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남겨두었다. **[도판 6]** 머리는 빠지고 다소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한다. 그리고 이후 25년을 더 살았다.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기원하며...

스페인독감으로 생을 달리한 클림트와 쉴레, 반대로 극복해

낸 몽크의 모습을 보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겪은 변화를 생각해보게 된다. 수많은 피해자에 대해 애도를 하며, 우리가 잃은 것들에 대한 그리움도 갖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화한 가치에 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 본 글은 허나영의 <다시 쓰는 착한 미술사>(타인의 사유, 2021)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6 몽크, <스페인독감 걸린 후 자화상>, 1919년, 캔버스에 유채, 150.5×131cm,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미술관 소장



가장 작은 규모로 최고의 무대 선사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OPERN-HAUS ZÜRICH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스위스 관광청 사이트에서는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100개의 객석을 갖춘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Opernhaus Zürich)는 명성 있는 오페라 극장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관객에게 최고의 공연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필자가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를 찾을 때마다 느꼈던 소회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크고 웅장한 건축물에 매료될지 모르겠지만, 공연장은 사실 조금 다르다. 공연장 음향은 결국 잔향 시간으로 좌우되는데, 이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공연장 체적(부피)과 내부의 흡음재 면적이다. 결국은 공연장의 볼륨이 작을수록 음향에는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도 큰 공간보다는 작은 공간의 소리를 울리기가 더 수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게다가 극장이 작을수록 무대를 바라보는 시야가 좋다.





1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파사드 2 쉐셀로이텐 광장(Sechseläutenplatz)

1,100석이라는 규모는 오페라 극장의 객석 수로는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 중 한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과는 확연히 다른 규모이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빈 국립 가극장(Wiener Staatsoper)의 경우 1,709석, 런던 로열오페라(Royal Opera House) 2,256석, 파리 바스티유(Bastille Opera) 2,745석,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Teatro alla Scala) 2,030석, 그리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Metropolitan Opera) 3,800석의 객석 수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1,100석에 불과한 입장 수입으로 좋은 작품과 좋은 출연진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Opernhaus Zürich)에서 만나는 오페라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2022년 6~7월 취리히 페스티벌(오페라 축제)기간 공연되는 라인 업을 보자.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베르디 오페라 ‘팔스타프’가 남은 기간 예정되어 있다. 이 중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팔스타프’는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의 지휘자 자난드레아 노세다(Gianandrea Noseda)가 지휘하고, 오페라 ‘팔스타프’의 주역 팔스타프(Sir John Falstaff) 역에는 성악가 브린 터펠(Bryn Terfel)이 출연한다. 객석 수와 무관하게 최고의 지휘자와 오페라 가수가 무대에 오르는 곳이 바로 취리히

오페라 축제이다.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Opern-Haus Zürich

쉴레로이텐 광장(Sechseläutenplatz)에 위치한 이곳은 1891년부터 취리히 오페라와 발레의 본거지였다. 취리히 최초의 극장인 악티엔 극장(Aktientheater)은 1834년에 지어졌으며, 이곳은 독일에서 망명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활동 중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악티엔 극장은 1890년에 전소되고 마는데, 새로운 극장은 취리히 시립극장(Stadtheater Zürich)이라는 이름으로 비엔나 건축가 펠너&헬머에 의해 지어졌다. 불과 16개월 만에 지어진 이 극장은 1891년에 문을 열었고, 유럽에서 최초로 전기 조명을 갖춘 극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25년까지 연극, 오페라 및 뮤지컬 행사를 위한 도시의 주요 공연 공간이었으며, 이후 오페라 하우스 취리히로 이름이 바뀌고 연극은 별도의 극장이 건립되면서 빠지게 되었다.

1970년에 이르러서 오페라 하우스는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했고, 1982년부터 2년간 재건이 이루어졌다. 재개관 당시에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와 루돌프 켈테르 보른의 안톤 체호프 오페라 ‘체리 가든(Der Kirschgarten)’의 세계 초연무대가 함께 했다. 베버, 바그



3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내부 4 톤할레 취리히 내부 5 톤할레 취리히 외관

너, 모차르트의 흥상으로 장식된, 흰색과 회색 석재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파사드가 있는 화려한 건물이다. 또한 쉴러, 셰익스피어 및 괴테의 흉상도 찾을 수 있다. 강당은 네오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졌다.

오페라 운영에는 적지 않은 공적자금이 들어가는데, 높은 보조금과 취리히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부족이 원인이 되어 1980년 5월,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 ‘취리히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취리히 불타다’라는 오페라 하우스 폭동(Opernhauskrawalle)이 청년 시위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재원 조달은 스위스 법에 따라 오페라 하우스 취리히 AG라는 이름의 유한회사가 조직되면서 1995년부터 주요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취리히 주의

권한으로 음악 극장과 발레를 운영하고 있다.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스위스 은행들이 오페라 하우스 취리히 AG의 파트너(후원사)이기도 하다.

전년도 9월에 오픈했던 극장들은 6월 말이면 대부분의 오페라 극장이 시즌을 마친다. 그리고 7월 말부터 8월에는 잘츠부르크, 브레겐츠와 같은 도시들에서는 오페라를 중심으로 한 음악축제가 열린다. 그래서 7월의 경우 유럽 주요 도시들을 방문해도 좀처럼 오페라를 만나기 어렵다. 이 경우 취리히, 뮌헨, 베로나 등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축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취리히와 뮌헨은 불과 300km 거리에 있어서 이 기간 두 도시를 엮어서 여행을 떠나면 최고의 오페라를 만날 수 있다.

취리히 페스티벌 Zürcher Festspiele

취리히 오페라 축제는 취리히 페스티벌의 일환이다. 해마다 초여름에 열리는 취리히 축제(Zürcher Festspiele)는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Tonhalle Zürich) 및 취리히 미술관(Kunsthaus Zürich)이 함께 참여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오페라, 드라마, 콘서트(클래식부터 재즈까지), 댄스, 전시회, 낭독 및 토론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는 참여기관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취리히 중앙역의 Summer Night's Ball 또는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에서 쾨셀로이텐 광장(Sechseläutenplatz)까지 생중계되는 라이브 오페라 '모두를 위한 오페라'가 포함되어 있다.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취리히 미술관(Kunsthaus Zürich)

신관이 2021년 코로나 기간에 개관했다. 총 공사비 2억 600만 CHF 스위스 프랑(약 260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디자인을 맡았다. 스위스 내 미술 중심지인 바젤 미술관 신관(Neu Bau)이 몇 해 전 오픈하였지만, 신관이 개관하면서 다시금 스위스 최고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다. 취리히 오페라극장과 톤할레 취리히와 더불어 이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는 젊은 가수와 피아니스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국제 오페라 스튜디오(Internationales Opernstudio IOS)의 본거지이기도 한다. 스튜디오는 1961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브리짓 파스벤더, 헤드비크 파스벤더, 안드레아스 호모키, 로즈마리 조슈아, 아드리안 켈리, 파비오 루이지, 제스케 마인센, 안 머레이, 아이탄 페스 또는 에디트 빈스와 같은 가르치는 유명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6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한 취리히 미술관 신관 7 취리히 전경



6



7

큰지붕 밑에서
편하게 만나요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서울서 택시를 타고 전설의고향에 가자면 예술의전당에 내려준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우스갯소리다. 이제 부산서 택시를 타고 예술의전당이나 전설의고향에 가자고 하면 영화의전당에 내려줄까? 문을 연 지 11년이 되는 영화의전당은 아직 시민들에게 친숙한 낯은 아닌 것 같다. 하늘연극장,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야외극장, 영화라이브러리 등 영화를 위해 완벽하게 꾸며진 공간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무대이며, 국제단편영화제, 인도영화제, 일본영화제, 독립영화제,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등이 매년 이곳에서 열린다. 그래서 영화애호가들에게는 무척 친숙한 공간이겠으나, 대중들에게는 썩 만만한 공간은 아니다. 자리를 좀 잡는가 할 때쯤 코로나라는 괴물이 등장해 광장출입마저 자유롭지 않을 만큼 거리를 벌여놓았다. 이제 그 코로나도 기력이 쇠하여 물러가는 듯 하니 다시 사이를 좁혀볼만 하겠다.

시민들이 무시로 만나는 공간은 야외광장과 야외극장이다. 길을 가다가도 빛과 소리에 이끌려 참여할 수 있고, 무료공연의 기회도 많다. 야외인데도 완벽한 그늘을 이루는 것은 큰 지붕(Big Roof)이 광장을 덮고, 작은 지붕(Small Roof)이 야외극장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큰 지붕은 가로 60.8미터, 세로 162.5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긴 외팔보지붕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축구장보다 더 큰 지붕이 옆은 뚫린 채 버티고 있는데, 야간에는 색색의 엘이디(LED)가 환상적인 조명쇼도 선사해주시기가 막힌다. 작은 지붕이 가로 65.8미터, 세로 120미터이니 작다고 하기엔 너무 크다. 영화의전당은 이 빅루프, 스몰루프로 불리우는 지붕들이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사진을 찍어도, 옆에서 보아도, 그늘에 앉아 있어도, 광장을 뛰어

박나무 자유기고가





다녀도 이 지붕을 떠날 수 없다. 그만큼 거대하고 독특한 구조물이다. 다시 가면 자세히 보시길 권한다.

우리가 영화의전당을 찾은 토요일에도 들썩임이 좋은 날이었다. 야외광장에선 부산국제연극제 다이나믹 스트리트 본선 경연이 한창인데, 젊은 예술가는 줄인형에게 피아노연주를 시키느라 땀을 한 말뚝은 쏟고 있었고, 관객들은 자유롭게 둘러앉아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작품 이름은 <초보목수와 목각인형>이지만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없이 그저 지나다가 멈춰서서 즐기면 된다. 곧이어 <뽁스!!!>가 시작되고, 광대는 현란한 몸짓으로 관객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밀어 넣는다. 광장에서의 마지막 공연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야외극장에선 영화음악콘서트가 열린다. KNN 체임버앙상블이 박진 지휘자의 진행과 사회로 친숙한 영화음악들을 테마별로 편집해 들려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들썩이고 뛰어다녀도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 왈츠곡에 맞춰 연인이 손을 맞잡고 댄스 삼매경이다. 관객들은 웃고 박수치고 떠들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함께 했다. 숨소리조차 미안한 공연장에 비하면 참 자유롭게 분방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구성된 음향설비들이 관객석에 멋진 소리들을 전해주었다. 잘 산다는 건 이렇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무더운 여름 밖으로 나온 시민들을 영화의전당에 모시기 위해 많

은 프로그램들이 줄을 서있다. 우선 마당 출입이라도 자유로워야 친해지고 사랑채 출입도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의 주무대인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무료공연들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른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무료영화상영회가 열린다. 7월에는 6일 <피아니스트의 전설>, 13일은 쉬고, 20일 <장고>, 27일 <여름이야기> 등이 예정되어 있다. 토요일에는 영화음악콘서트와 지역 예술인의 무대가 펼쳐진다. 7월 16일, 서희태 지휘자가 진행하고 해설하는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가 준비됐다. 7월 23일엔 동래학춤 보존회가 우리 고유의 멋과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8월에는 더 조밀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 잘 살펴볼 일이다. 비가 와도 지붕이 있어 웬만하면 예정된 프로그램은 진행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겠지만, 차를 가져가야 할 형편이라면 4시간 주차요금을 2천원으로 하겠다는 정보도 요긴하겠다. 서울 사람 남산 안 가 본 사람 많고, 제주 사람 한라산 안 가 본 사람 많고, 부산 사람 해운대 안 가 본 사람 많겠지만,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은 꼭 한 번 가 보시길 바란다. 참 좋다.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dureraum.org

오디션을 거친 최정상급 성악가 8인이 선사하는
유쾌한 드라마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G. Rossini



지휘 이명근
연출 및 해설 이의주
무대구성 이의주
의상디자인 한승수
조명디자인 김민재
분장디자인 구유진
무대감독 박재현
음악코치 도민영
영상제작 아트 포레스트 조은빈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로지나 오예은, 박나래, 전은혜
피가로 이태영, 유용준, 시영민
알마비바 강도호
바르톨로 박순기
무용 현지연

무대제작 남기혁
조연출 전하라

2022. 7. 7(목) ~ 7. 9(토)

평일 오전 10:30, 오후 2:00 토요일 오후 3:00

※ 평일은 단체관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 균일 20,000원(정기회원 20% 할인) 예매 | 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6000(ARS 1번), 051)607-3110, 3113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부산시립예술단 기획공연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 부산지역 청년성악가 8인을 주역으로 선발하며 화제를 모은 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가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부산시민회관에서 막이 오른다.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공연기획 구상 단계부터 '교육'과 '오페라'에 대한 화두로 출발, 오페라에 정통한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이명근과 최연소 국립오페라단 상근연출자로 활동한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가 의기투합해 만든 오페라 갈라무대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역 오페라 무대를 이끌어갈 청년성악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 39세 이하의 부산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 준비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지난 5월 16일 오디션을 통해 로지나와 피가로를 3명씩 선발, 3인 3색의 매력을 전할 로지나-피가로와 알마비바, 바르톨로 등 8명의 청년성악가들이 토코오페라에 참여한다. 로지나-피가로는 소프라노 오예은, 박나래, 전은혜, 바리톤 이태영, 유용준, 시영민이, 알마비바에는 태너 강도호, 바르톨로에는 베이스 바리톤 박순기가 캐스팅되었다.

이번 토코 오페라의 연출을 맡은 이의주는 한국예술종합학

교 오페라 연출 전문사를 수료하고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아르세날레 극장 아카데미아 연극 및 연기 수학,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아 오페라 분석과 연출로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에서 '세비야의 이발사'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그동안 300여 차례가 넘는 오페라 무대를 연출하여 호평받은 바 있다.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오페라 부파의 거장 로시니의 대표작으로, 1816년에 작곡되어 초연 이후부터 지금까지 널리 연주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극오페라'로 알려진 작품이다. 재미있는 줄거리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매력적인 작품으로 다양한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나는 이 거리의 만능 해결사'와 '방금 들린 그 음성' 등 익숙한 아리아로 '입문용 오페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이번 무대는 한 편의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한 갈라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이끄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라이브 연주와 연출가 이의주의 아이디어 넘치는 연출, 토코로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토코 중에는 추첨을 통해 관객을 선정, 그 자리에서 오페라 분장체험을 라이브 중계로 진행하면서 관객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 시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8일 금요일 오전 10:30(단체관람), 9일 토요일 오후 3:00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21년 오페라워크 관람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 국악칸타타 일향악 세계기(一響樂 世界起)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해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한 무대, 부산 국악칸타타 ‘일향악 세계기(一響樂 世界起)’가 7월 7일과 8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 국악칸타타 ‘일향악 세계기(一響樂 世界起)’는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린 부산,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로, 지난해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바 있다.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해온 시인 이청산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고자 ‘만파식적’을 찾아 노랫말을 지었으며, 서양음악 작곡가이지만 우리만의 감성을 자극하는 작곡가 김은혜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으로 작곡을 맡아 전통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일향악 세계기(一響樂 世界起)’는 네 개의 큰 주제와 주제마다 3~5개의 작은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17곡에 이르는 대편성 국악관현악과 독창(소프라노, 바리톤, 카운터테너, 남창, 여창) 그리고 혼성합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김해시립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시립무용단, 그리고 정선희(여창), 최용석(남창), 김유섬(소프라노), 이희상

(카운터테너), 강경원(바리톤) 등 정상급의 소리꾼과 성악가들이 출연,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웅장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제1장 ‘신화’에서는 금정산, 오륙도, 거칠산국 등 부산의 지명이 담긴 합창곡을 통해 아름다운 부산의 자연과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려내며, 제2장 ‘사람살이’에서는 수영청놀이, 좌수영 어방놀이 등 부산에 전해져오는 무형문화재의 한 부분을 주제로 가져와 평화로운 일상을 노래한다. 제3장 ‘변란의 시대’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변화와 수질오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현재 상황들을 다섯 개의 주제로 표현한 무대로, 전통선율뿐 아니라 롬바, 삼바, 탱고 등 라틴리듬이 어우러져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지막 장인 제4장 ‘꽃 한 송이(만파식적)’는 세상을 구하는 만파식적 소리로 모든 변란이 물러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로, 앞서 등장했던 모든 독창자(남창, 여창, 소프라노, 바리톤, 카운터테너)와 합창단이 함께 어우러져 부산의 선율을 힘차게 노래한다.

특히, 이번 첫 공연인 7일에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소방관 등 팬데믹 기간동안 국민들을 위해 헌신한 관계자들을 특별히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일 시 7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특별 초청공연), 8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7일 공연 초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 이미 세계적으로 비르투오소적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는 연주자이자 지난해 지휘자로 데뷔한 김선욱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9회 정기연주회가 7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유럽 최고의 페스티벌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만 15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음악계를 놀라게 한 첼리스트 한재민이 협연을 맡아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과 그의 교향곡 중 최고의 교향곡으로 평가받는 교향곡 제7번을 들려준다.

동세대 연주자 중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지휘자 김선욱은 지난 2004년 독일 에틀링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05년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고 2006년 열여덟의 나이로 리즈국제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13년 독일 본에 위치한 베토벤 생가 '베토벤 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 첫 수혜자로 선정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완주하면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불린다.

김선욱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피아노를 전공했으나 이후 영국왕립음악원 지휘 석사과정(MA)을 마쳤으며 2019년,

영국왕립음악원 회원(FRAM)이 되었다. 지난 시즌 KBS교향악단과 지휘자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김선욱은 올해 지휘자로서는 2021/22 시즌 본머스 심포니와 함께 유럽 데뷔 무대를 가지는 한편, LA 필하모닉(나살라에 스투즈맨),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젼마 뉴),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에바 올리카이넨), BBC 필하모닉(바실리 시나이스키), 라티 심포니(로데릭 콕스), 버밍엄 심포니(리오넬 브랑기에) 등과의 협연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무대 첫 곡으로는 드보르작이 남긴 마지막 솔로 협주곡으로, 미국에 머무르던 시기에 작곡된 '첼로 협주곡'을 첼리스트 한재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로 선발되어 재학 중인 한재민은 만 8세에 최연소로 원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후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1위를 석권하며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등 최정상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2018 평창대관령국제음악학교에서 열린 협연자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 정치용 지휘의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한재민은 이번 무대에서 어린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음악적 해석과 기교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 시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 시작 HAMLETIQUE



●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새롭게 재해석한 '권력의 시작_HAMLETIQUE'가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국립 파리8대학교 무대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다원예술프로젝트 컴퍼니 PerformanceProcessing-Today 대표로 있는 연출가 강태욱이 맡아 새로운 해석의 '햄릿'으로 관객과 만난다.

덴마크의 '제레미 햄릿'이 서거하고,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흐른다. '포터프라스'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호레이쇼'는 세상에 대한 복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햄릿 가문의 왕자 '테오 햄릿'의 종을 자처하며 긴 시간을 살아가던 중, 시대의 배후에서 암약하는 조직의 힘을 빌어, 혼란에 동참하려 한다. 한편, 어린 시절 선왕에게 쫓겨나, 벽지를 전전하며 삶을 연명하던 왕자 '테오 햄릿'은 자신의 친모 '거트루트' 왕비와 현재의 왕이자, 자신의 숙부인 '클로디어스' 왕의 결혼식 축하연 참석을 위해 덴마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 작품에서 강태욱 연출가는 "인간성 본질에 대한 깊은 고찰이라는 원작이 가지는 주된 주제적 가치를 논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전형성과 몇몇 주요인물의 비현실적인 성격묘사

가 우화적인 느낌으로 다가 왔기에, 시·공간적 배경이 되는 12세기 중·후반의 덴마크,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가미, 오늘날 현대인의 정서와 현실감으로 재구성하고, 재창작했다"며 특히 "원작에서 선왕의 죽음에 동생 클로디어스에 의한 독살이라는 점과 형수인 거트루트와 재혼한다는 정도만 살리고 가문들끼리의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그리면서 원작의 주인공이자 갈등의 중심인 햄릿왕자는 더 이상 주동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 사이에서 휩쓸리고, 원치 않은 요구에 강요되는 입장에 놓여진 인물로 묘사하면서 인물들 간의 충돌 과정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의지, 혹은 욕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탐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에서는 단원 황창기가 클로디어스, 이현주가 거트루트, 채민수가 테오 햄릿, 이태성이 호레이쇼 역을 맡는 등 부산시립극단 전 단원들이 출연, 새로운 '햄릿'을 선보인다. 극작과 연출을 겸하고 있는 연출가 강태욱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체홉의 이야기_내기', '스타프로젝트 주목_스트립티즈'의 각색과 재구성, 연출을 맡아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으며, 현재 연극 뿐 아니라 무용극, 다원예술, 퍼포먼스 연출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일 시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중학생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II(時間II)



●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합창단의 시원한 음악선물 '2022 Summer Fantasy'가 7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Summer Fantasy'는 매년 여름, 클래식 위주의 딱딱한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과 합창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으로,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차례 휴식기를 가졌던 'Summer Fantasy'는 올해 '시간(時間)II'라는 부제로, 한 가수의 곡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했던 이전 공연과는 달리 한 사람의 사랑, 이별, 희망 등 시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드라마 같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신해철의 'Lazencza, Save Us'로 화려한 포문을 연 후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에게 세상에 맞서 나가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Welcome To The Real World', 젊은 세대가 느끼는 고독과 소외감 등을 그린 '재즈카페' 등 신해철의 곡을 연이어 들려준다. 이어서는 아련한 첫사랑이 생각나는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을 시작으로 영탁의 대표곡 '찢이야', 나훈아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박상철 '무조건', 이선희 '인연', 이은미 '녹턴',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등 사랑의 변화를 다양한 감정으로 그려낸 가요들이 연주된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나훈아의 '테스형!'과 '용두산 엘레지', 김도향의 '시간'에 이어 이별과 허무함을 위로해 줄 윤복희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빛과 같은 존재임을 노래하는 H.O.T.의 '빛'과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임을 노래하는 김원준 'Show'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박하고 집중된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음악이 주는 메시지와 깊이를 전달해온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임희준이 지휘하고 팝, 펑크, 재즈뿐 아니라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 세션 그룹 2310밴드, THE STRING PLAYERS가 협연한다. 특히 야마하 공식 아티스트 이삼열이 이끄는 2310밴드의 웅장한 사운드와 THE STRING PLAYERS의 서정적인 클래식 기법에 영상미가 어우러진 무대로, 원곡과는 다른 색다른 편곡으로 관객들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 시 7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W.C.W.S 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 **한국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피아니스트 홍민수, 두 젊은 연주자의 환상적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는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W.C.W.S) 세 번째 무대가 7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최근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차세대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높은 연주와 더불어 세계 클래식 의 최신 흐름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네덜란드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피아니스트 홍민수의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지난 2015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임지영은 콩쿠르 당시 놀라운 집중력과 대담하면서도 안정된 연주, 단련된 테크닉 등 다양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쟁쟁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하여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2015년 금호아시아나문

화재단의 금호음악인상, 한국언론인연합회의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대원문화재단의 대원음악상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함께 녹음한 그녀의 첫 앨범이 워너 클래식 레이블을 통해 전 세계에 발매된 바 있다.

피아니스트 홍민수는 만 12세에 심멜 국제 청소년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오벌린 국제 청소년콩쿠르, 하노버 쇼팽협회 콩쿠르 등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11년과 2014년 이탈리아 페루치오 부조니 콩쿠르에서 2회 입상하고 2016년 윤이상 국제콩쿠르 3위 입상, 201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네덜란드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입상하며 차세대 아티스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수석 입학했으며, 현재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 음악대학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최고연주자과정에 재학 중인 홍민수는 화려한 수상경력과 함께 만 9세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로 데뷔한 후 그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다채롭고 폭넓은 음악세계를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제1번’, 비에니아프스키 ‘파우스트 판타지’, 스트라우스 ‘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18’를 들려준다.

일 시 7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행복의 화가(A painter of bonheur)'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첫 부산 전시가 7월 9일부터 부산문화회관에 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이후 부산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블록버스터 전시회로, 앞서 열린 서울 전시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앙리 마티스 회고전으로, 200여 점에 달하는 드로잉, 판화, 일러스트, 아트북 등 그가 남긴 방대한 원화 작품을 통해 '야수파'로만 알려진 마티스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시대를 앞서간 '선의 연금술사'

앙리 마티스는 20세기 표현주의 화가로,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회화에 위대한 지침을 놓았다고 평가된다. 그가 주도한 '야수파(Fauvism) 운동'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으로 여겨지는데, '야수파'란 고흐와 고갱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 사조로, 원색의 강렬한 색채 사용이 특징이다. 순수하고 섬세한 색조, 단순한 선과 구성을 토대로 행복함과 충만함을 표현한 그의 그림들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든다.

"색채를 곧장 질러 나가는 것은
조각가가 석재를 가지고 하는 일을 연상시킨다."



"검토하는 중 어떤 때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앙리 마티스는 '야수파의 창시자'를 넘어서 드로잉과 판화를 통해 대담하면서도 단순하고 아름다운 선과 형태를 만들어낸 '선의 언급술사'이기도 했다. 그는 색채에 앞서 '선'을 관능적이고 유려하게 표현하며 선에 집중한 화가로, 오직 선과 명암, 그리고 그림자만으로 대상의 살아 있는 혼을 담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또 장르의 경계를 탈피한 컷 아웃과 시대를 앞서간 아트 북 디자인, 일러스트 등을 통해 20세기 그래픽 아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전파한 그래픽 아티스트로, 현대의 모더니즘 디자인과 그래픽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화가였다.

데이비드 호크니와 재스퍼 존스, 제프 쿤스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대 미술에 미치는 광범위한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현대의 그래픽 아트에 지대한 영향

이번 전시는 원화작품은 물론 영상과 사진,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 앙리 마티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66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낙담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평화와
고요를 찾길 희망한다.

99

Henri Matisse Life and joy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

7월 9일(토)-10월 30일(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10시~19시(입장마감 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단 공휴일인 월요일(8/15, 9/12,
10/3, 10/10)은 정상운영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 7월 8일까지 얼리버드
(50% 할인) 티켓 판매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 henrimatisse.co.kr

본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며 가장 중요한 예술 장르로 떠오른 일러스트와 그래픽 아트에 있어 앙리 마티스가 남긴 유산을 그의 아트북 작품들을 통해 총체적으로 조명해 본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북 작품이자 앙리 마티스의 대표작인 '재즈(JAZZ)'의 원본이 공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재즈'는 마티스가 암과 투병하면서 발견하게 된 종이 오리기 기법(Découpage-데쿠파주)의 정수가 담긴 한정판 아트북 형태의 작품으로, 1947년 첫 선을 보인 '재즈'에는 마티스가 직접 제작한 스텐실 판화 20점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 스텐실 판화가 수록된 페이지 전체를 공개하여 원작의 느낌과 감동을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이밖에도 이번 전시에는 프랑스 니스 바닷가의 파도 소리, 마티스 고향 평원의 바람 소리를 현지 올로케이션으로 촬영하여 담아낸 영상과 뮤지션 정재형의 음악, 그리고 미디어아트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티스의 예술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담아낸다. 특히 부산 전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이고 참신한 특강들로 마티스의 예술세계를 한층 더 깊고 즐겁게 만날 수 있다.

앙리 마티스 전시 연계특강



장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아트콘서트 1만5천원,
4개 특강 패키지 3만원)



앙리 마티스, 20세기 현대미술의 문을 열다!

7월 16일(토) 14:00

강사 **박우찬**(미술평론가)

마티스의 삶과 예술세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초보 화가 마티스가 현대미술을 개척해 나가는 탐구 과정과 그의 집요한 조형 실험, 그리고 마티스를 20세기 미술의 개척자로 만든 야수파 미술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마티스의 미술이 추상미술과 20세기 미술문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더불어 미술의 두 아이콘인 피카소와 마티스의 라이벌 관계와 둘의 예술세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남프랑스, 마티스의 흔적을 찾아서:마티스 미술관과 그의 친구들

8월 6일(토) 14:00

강사 **이현**(미술사연구소장 및 미술사가)

남프랑스는 마티스의 예술세계의 변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장소이다. 마티스는 파리

에서 생트로페(Saint-Tropez)로 이동하여 폴 시냐크(Paul Signac)을 만나 신 인상파 기법의 전환을 맞이하였고, 콜리우르(Collioure)에서는 앙드레 드랭(Audre Derain)과 함께 야수파의 탄생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마티스에게 휴식과 충전의 장소였던 남프랑스로 함께 떠나보는 시간으로, 더불어 마티스의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재즈와 함께 니스의 마티스미술관을 둘러보고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해본다.



앙리 마티스, 파리 패션을 매혹하다♥

8월 9일(화) 14:00

강사 **김홍기**(패션 큐레이터 및 작가)

20세기 파리의 패션은 모더니즘 예술과 교류 속에서 성장한다. 당시 미술계는 혁신적 사조가 혼돈을 거듭하여 등장했는데 그 최초의 막을 연 것은 야수파였다. 강렬한 색채와 대상의 형태를 대담하게 변형하여 인간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야수파는 당시 '개성의 스타일링'이 점차 중요성을 띠기 시작하던 20세기 초 패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강의에서는 앙리 마티스의 여성 초상화 속 여인들의 옷을 통해 화가의 영감이 오늘날의 패션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당시의 오트 쿠튀르 문화를 모더니즘 예술의 다각적인 측면을 통해 살펴본다.



앙리 마티스, 신의 집을 짓다: 방스 로사리오 경당

9월 14일(수) 14:00

강사 **가비노 김**(마인트포스트 편집부장 및 바티칸 뉴스 편집자)

노년의 앙리 마티스가 완성해 낸 역작

이자 그 예술의 정수인 방스 로사리오 경당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의 세계와 그의 시대, 근현대 미술에서 종교의 의미를 돌아본다. 1941년 대수술 후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부활한 마티스는 1947년말 도미니코 수도회의 로사리오 경당 설계라는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번 강좌에서는 방스 로사리오 경당 축조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각 작업의 의미를 마티스의 전 예술과 종교의 맥락에서 재조명해본다. 더불어 경당 축조에 관여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입장과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아트콘서트 '마티스가 사랑한 음악'

10월 1일(토) 16:00

진행 **장원**(미술평론가, 예술학박사)
연주 **Moz-Art 앙상블**(피아노 김진석, 플루트 안병건, 클라리넷 윤빛나, 첼로 김경연, 바이올린 전해빈)

야수파의 창시자로서 입체파의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전반의 혁신적 미술을 이끌었던 마티스는 새로운 회화의 길을 개척하면서도 음악에 깊은 관심과 조예를 보였던 인물이다. 그는 스스로 바이올린을 즐겨 연주했고 자녀들에게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음악을 소재로 한 작품을 풍성하게 남겼다. 마티스가 사랑한 음악, 마티스에게 영감을 주었던 음악을 그의 작품과 함께 Moz-Art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로 함께 감상해본다.



원색의 마술사에서 가위로 그림 그리는 화가로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

H E N R I M A T I S S E L I F E A N D J O Y

장원 미술평론가, 예술학박사

엔데믹으로 다가가며 코로나19의 '블루(우울한) 시간'을 벗어나 고차 다시금 일상의 기지개를 펴는 2022년 여름, 부산문화회관에서는 그에 걸맞는 블록버스터 전시회를 개최한다. '야수파(Fauvisme)'를 창시한 화가로서 20세기 전반에 파리 미술계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더니즘 미술을 피카소와 양분했던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작품들이 대규모로 부산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여 점이 넘는 판화를 비롯하여 일러스트와 아트북 등 마티스의 원화가 방대하게 소개되며, 이는 국내에서 열리는 마티스 전시 중에서 거대한 규모이다.

1954년 11월의 어느 날 마티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 속에서 그를 추모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국민화가' 마티스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했다. 예술가 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다니, 우리의 문화나 정서에서는 매우 낯선 풍경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밀레 혹은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마티스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가였던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은 1948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열린 마티스의 회고전 서문에서, "마티스의

그림 옆에서는 반 고흐, 르누아르, 모네, 터너의 그림마저 빛을 잃고 만다"라며 마티스 회화가 지닌 빛과 색의 강렬함을 강조한다. 국내의 한 번역서도 마티스를 '원색의 마술사'라고 표현했듯이, 원색을 가장 밝고 순수한 상태로 마티스처럼 자유자재로, 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담아 그려낸 화가는 일찍이 없었다. 오죽하면 마티스가 파격적인 색채의 사용으로 인해 20세기 초반에 가장 혁명적인 작가로 주목받도록 했던 작품들이 세간의 물이해 속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포악한 야수와 같다"는 비난을 받으며 그를 '야수파'의 주동자로 꼽히도록 만들었을까. 그럼에도 마티스는 이내 20세기 회화에서 색채를 통해 순수조형을 개척한 대표자로 평가받게 된다.

하지만 마티스의 작품을 대표하는 폭발적 색채는 그의 단순한 선형 덕택에 더욱 돋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색채 화가로서 마티스의 탄생이 가능하게 했던 선들의 묘미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마티스 작품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티스는 원래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고향으로 돌아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 심한 맹장염에 걸렸던 마티스





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오랜 요양을 견딜 소일거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미술 도구를 사주었고 이것이 혁명적 색채 화가 마티스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티스는 결국 다시 파리로 향했고, 처음에 부그로(William-Adolphe Bouguereau, 1825-1905)에게서 배우는 동시에 루브르미술관에서 대가들의 작품을 모사하며 그림을 터득했다. 그러던 중에 상징주의 회화의 대가였던 모로(Gustave Moreau, 1826-1898)를 만나게 되면서 평생에 걸친 예술적 태도를 확립하게 된다. “미술은 내적 감정의 조형적 표현을 위한 약삭같은 추구”라는 모로의 가르침은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표현”이라는 마티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모로의 타계와 더불어 찾아온 20세기는 마티스가 자신의 표현을 위해 색채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형성된다. 쇠라의 신인상주의를 발전시킨 시냐크(Paul Signac, 1863-1935)과 크로스(Henri-Edmond Cross, 1856-1910)를 만나 색채 회화의 진수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조차 마티스의 뜨거운 표현력과 색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시냐크는 야수주의가 탄생한 1905년의 전시회를 보고 “재능 있는 젊은이가 미쳤다!”고 한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비로소 원색의 표현력을 통해 자신만의 회화를 형성하여 한동안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등 단순하지만 강렬한 색채 회화를 그려나갔던 마티스에게 또 한 번의 도약의 계기가 찾아온다. 1910년대 초에 모로코 등지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아라베스크 문양의 옷감이나 카펫, 꽃무늬 패턴들로부터 평면적 장식성이 지닌 조형적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이로써 마티스의 그림은 공간감이 제거된 평면성, 이를 강조하는 단순하지만 유려한 선형, 그리고 강렬한 원색을 종합한 회화를 통해 삶의 기쁨과 그의 낙천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처럼 밝고 화려한 그림은 2차 대전 당시에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게 되지만, 실은 그의 삶이 화려하거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1941년에 받은 암 수술과 후유증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다. 또한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 붓을 제대로 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티스는 이런 악조건조차도 새로운 작품의 계기로 삼았다. 가위로 색종이를 오려서 붙이는 ‘데쿠파주(découpage)’ 기법을 통해 그동안 물감을 칠해 제작했던 평면적 장식성과 강렬한 원색 회화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타계할 때까지 10여 년의 작품을 스스로 “가위로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했고, 색채 일러스트 시리즈는 현대의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작품들이 대거 소개되는 부산문화회관에서의 이번 전시는 마티스가 색채 화가라는 협소한 프레임임을 넘어, 대담할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유려한 선형을 구사한 그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모두 겪은 우울한 시대에, 개인적으로는 여러 병마로 시달렸던 마티스는 갑작스런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삶의 기쁨과 환희를 찬미하고 노래했던 화가였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를 관통하며 많은 이들의 뜻하지 않은 죽음과 감염의 고통, 희생을 직간접적으로 겪어온 우리들에게 마티스가 작품으로 전하는 삶의 기쁨을 느끼며 고통의 극복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전시와 더불어 마티스의 생애와 작품 이해를 높여줄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은 예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화두를 던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Henri Matisse

22. 7. 9. ————— 10. 30.

HENRI MATISSE
Life and Joy

09 JUL-
30 OCT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Hall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2022년 7월 9일 -
10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Sound]
of
MATISSE

[Line]
of
MATISSE

[Color]
of
MATISSE



HM53

Life and Joy

제17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아이에겐 감성을, 어른에겐 감동을!

7. 8^금 ~ 7. 17^일

영화의전당

북구 대천천 야외상영장, 중구 유라리광장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사무국

051-743-7652, www.biky.or.kr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최가 되어 열리는 참여형 영상문화축제 '제17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이하 BIKY)'가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과 북구 대천천 야외상영장,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방정환 선생과 천도교소년회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 개막식을 통해 '다시 어린이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어린이날 선포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BIKY는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상문화를 인지시키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지난 2005년 프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위로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BIKY에서는 국내외 영화인 초청을 통한 관객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부대행사의 다양화, 개최기간 연장을 통한 학교 단체관람과 시민참여 확대로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영화애호가들에게 열흘간의 행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전 세계 61개국 155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이 중 108편이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프리미어로, 칸-베를린 같은 우수 영화제 초청작 및 골든글로브 후보작을 고루 포진시켜 어린이 청소년 세대 영화제로서 주요 영화를 발굴하는 한편, 동시대 경향과 흐름을 소개한다. 섹션별로는 우선 BIKY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공식 경쟁부문인 '레디~액션!'을 주목할 수 있다. '레디~액션!'은 어린이·청소년 영화인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레디~액션! 12', '레디~액션! 15', 그리고 '레디~액션! 18'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레디~액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섹션으로, 올해는 48개국 375편의 작품 중 예선을 거친 16개국 40편의 영화가 본선에 올라 관객과 만난다.

비경쟁부문에서는 불완전하고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성숙과 자립을 꿈꾸는 내용이 담긴 '나를 찾아서'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합을 다룬 '너와 더불어', 차별이 되지 않는 차이, 다름을 꺼안는 관용을 꿈꾸는 '다름 안에서', 신나는 모험과 설레는 미래의 상상이 가득한 '경계를 넘어





신데렐라를 위한 세 가지 소원

서' 등 주제별 섹션별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해는 웰메이드 장르 영화들이 강세를 보인 해로, 국내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고 배급하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 주연의 장르영화가 세계에서 어떤 입지로 자리매김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데렐라를 위한 세가지 소원', '매직 피라미드의 비밀', '야콥 코는 마법 코', '캡틴 노바' 등 '경계를 넘어' 섹션에 출품된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어린이 청소년 영화에서 길을 제시하는 존재로 그려졌던 어른들 역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존재로, 그들이 처한 고통과 존재론적 현실을 그린 작품들이 다수 초청받았다. '우리 아빠는 소시지', '투명인간 빈스키', '하늘을 나는 방법' 등 어른의 캐릭터성을 두드러지게 그려내며 가족 더 나아가 세대간의 사랑과 화합으로 주제의식을 확장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난민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통해 공존의 해법을 모색하는 작품을 소개해온 BIKY는 올해 해당 주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의 단편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큐 애니메이션인 '타리'는 팬데믹을 겪으며 고군분투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이야기를, '브리짓트 바르도'는 프랑스어 학습 도우미를 둘러싼 웃지못할 해프닝을 그리고 있으며, 핀란드 애니메이션 '상록은 타국의 낯선 이들을 우리에게 갇힌 그물로 묘사하여 씩씩한 웃음을 남기는 등 타자에 대한 고민과 공감을 색다른 재현 형식으로 다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어린이 청소년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 '다시 찾아온 채널1016'에서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담긴 민주, 사랑, 평화, 인권의 가치를 영화를 통해

나누고 여성과 아동인권을 억압하는 사회 정치적 문제를 고발하거나 10대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사이버상에서 욕설, 헐뜯, 허위 사실 유포, 따돌림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현상), 장애인 차별, 동성애 혐오 등 다양한 논쟁적 이슈를 담은 10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국제영화제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완두콩극장'에서는 올해 BIKY와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중인 슈링겔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함께한다. 독일 켐니츠에서 개최되는 슈링겔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자국의 어린이 청소년 영화 홍보 및 해외교류에 가장 열정적인 영화제로, 총 9편의 단편 애니메이션과 슈링겔이 추천하는 우수 독일 장편영화를 초청 상영한다.

이밖에 여름밤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야외상영작으로 마련되는 '야외극장-달빛별빛', 영화제 기간동안 초청 신작을 교실에 바로 만날 수 있는 '바로, 씽(Cinema Delivery)'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바로, 씽'은 담임교사가 직접 BIKY 워크북을 활용해 영화읽기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폭력'이라는 주제로 중구 지역의 학교와 학생, 교사에게 새로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개막식은 7월 8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작으로는 인도-프랑스 합작영화인 '안녕, 시네마천국'으로, 영화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된 소년 샤메이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하늘을 나는 방법

국악관현악의 최근 트렌드를 보여준 합동교류음악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 정영진 부산광역시문화재 위원

12부로 구성된 이날 연주에서 1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맡았고 2부는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박승희가 맡았다. 두 지휘자의 음악적 해석과 지휘의 양태는 꽤 달랐다. 양쪽 단원들이 한 팀을 이루는 음악적 교류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두 지휘자의 음악적 해석과 지휘의 성향을 볼 수 있는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음 연주는 22일 공주에서 교류음악회가 열린다. 아마도 이를 통하여 각 악단끼리 음악적 완성도는 더욱 다듬어질 것이고 관현악의 상향 평균화를 이루는 데 분명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1부 첫 곡은 신경숙과 김탁환의 소설을 통해 널리 알려진 개화기 비운의 무희 리진(李眞)의 삶 일부를 음악적 서사 구조로 표현한 <리진 덕수궁으로 돌아온 나비의 춤>이다. 물론 실존 인물이었는지는 논쟁이 되고 있다. 궁중 장악원 소속의 여령(女伶) 내지는 관기였을 리진은 외국 공사들 앞에서 춤을 선보일 때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제1대 프랑스 공사의 눈에 들어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프랑스로 떠났다. 그녀는 유럽의 선진문물을 접하게 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깨닫는다. 그러나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서양인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린다. 조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날을 보내다 1896년 플랑시와 리진은 플랑시 공사가 조선의 3대 프랑스 공사로 취임하게 되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리진은 플랑시와의 이별, 그리고 신분 사회의 벽에 막혀 관기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알게 된 자유와 평등이 당시 시대상과 자신의 상황과 그 괴리감에 시달린다. 결국 리진은 금조각을 삼키고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한 비운의 개화기 여성이 된다. 음악의 서주는 그녀의 젊은 날 발랄했던 무희로서의 환희를 관악기군의 힘찬 음량으로 다이나믹함으로 대비시키고 음악의 중후반 리진의 내면적 갈등은 선율적 섬세함으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개중에 김탁환의 <파리의 조선 궁녀, 리심> 소설을 읽고 이 곡을 감상한다면 장면의 대별이 잘 그려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프닝 무대에 딱 맞는 부드

Review



러움과 다이내믹이 조화를 이룬 곡이었다.

두 번째 곡인 거문고 협주곡 <섬화>는 부산 초연작으로 1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 곡은 그 음악적 난해함, 그것에 반하여 거문고의 강렬함이 극도의 몰입감을 가져다주는 작품이었다. 타악기의 정확한 비트와 장단의 실연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어찌 보면 관현악단의 음악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장단의 변화가 많고 각각의 악기 파트별로 리듬꼴 형태도 달라 지휘자의 역할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되는 곡이다. 서양음악에서 악기마다 다른 리듬 때문에 연주자들을 찢절 매게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박자가 등장하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버금가는 곡으로 여겨진다. 지휘자는 프레이즈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파트별 표현해야 할 각 악기의 음색 선명도를 높였으며 연주자와 지휘자 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지휘자의 정확한 비팅이 깔끔한 연주를 이끌었다. 또한 거문고 협연자의 당당함과 거침없는 술대사용, 자신감 있는 연주는 이 곡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연주를 이끌었던 원동력으로 보여진다. 정말 요즘 한 단계 발전한 국악관현악곡을 듣게 되어 무척 기뻐고 앵콜곡으로 꼭 칭해보고픈 연주였다.

세 번째 곡은 박범훈 작곡의 <신내림>으로 이미 국악관현악곡의 바이블 정도 되는 곡이다. 박범훈의 <신내림>·<신모듬>·<신맛이>로 이루어는 박범훈의 신(神) 시리즈는 무속음악의 결정판이며, 음악적 완성도와 대중적 인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연주 <신내림>에서 주된 리듬적 중핵으로 작용한 반설음 장단 즉, 2+3+2+3으로 혼합된 혼소박 4박(10/8박자) 장단이다. 일명 터벌림 장단은 일반인에게 나도 묘하게 접신(接神)되는 기분을 들게 만든다. 접신 아니 접음(接音)의 경지로 이끌었고 발표된 지 30년이 더 지났으나 여전히 우리를 접음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 곡 어딘가에는 분명 신(神)이 붙어있는 것 같다. 연주자인 그들도 마치 신이 내린 강신무가 된 듯 보였다.

2부 첫 곡은 원일 작곡의 <달빛향해>이다. 작곡가 원일은 국악관현악단에 리듬적 요소를 강하게 적용시킨 인물이다. 선율도 리듬적으로 풀어내는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으며 독특하고 창

의적인 작품들, 흔히 유니크한 작품을 주로 발표하여 큰 관심을 받았던 작곡가이다. 이날 연주된 <달빛향해>도 황해도 민요 '몽금포타령'에서 주제를 가져와 노래 선율을 리드미한 구조로 만든 작품이다. 명상적 몽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돌림방식의 음악구조가 잘 드러나게 연주되었다. 두 번째 곡은 홍정의 작곡의 마림바 협주곡 <바람의 노래>였다. 이 곡은 원래 양금과 마두금을 위한 협주곡이었던 곡을 서양악기 마림바 협주곡으로 재구성하여 지난해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에서 개작 초연되었다. 마림바의 톤바가 나무로 만들어져 자연적 음색을 가졌기에 국악과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주제 선율은 몽골의 전통민요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에 대평원의 광활함에 실려 오는 바람의 노래를 듣는 듯했다. 특히 카덴차 부분에서 화려하고 자유스런 무반주의 마림바 연주는 마치 몽골 평원을 내달리는 준마의 기상을 보는 듯했다.

마지막 곡으로 이정호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금강, 역동의 강>이다. 부산은 초연이지만 2022년 4월, 먼저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나는 이 곡의 그 웅장함으로 인해 과연 국악관현악의 곡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아직도 국악기가 가지는 음정과 음색의 표현적 한계가 분명 존재함에도 이를 일시에 잊게 만드는 곡이었다. 4박과 8박으로 관악기군은 도도히, 그리고 굽이쳐 물 흐르듯 가락이 많고 현악기들은 글리산도와 트릴 주법으로 강의 역동성을 사실적으로 밀접하게 그려내고 있다. 혼합박자를 사용하여 채색을 질게 하여 원근감과 음양의 대비가 확실히 드러나게 그려진 한 폭의 대작이다. 물론 이날은 합동 공연으로 그 연주 인원이 9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양악의 3관 편성에 버금가는 규모였지만 그런 웅장한 스케일과 음향적 에너지는 연주회장을 압도하였다. 작곡자의 잘 계산된 음열 배치가 이런 웅장한 국악관현악곡을 탄생시켰고 국악관현악의 음악적 예술성과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 올린 선형적인 대표곡이라고 생각된다. 지휘자는 전곡을 암보로 지휘하였다. 악상의 감정적인 느낌을 지휘로 극대화하여 강하게 연출되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하여 음악적 긴밀감과 긴장감을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시도 무대에서 눈을 땔 수 없었고 그 긴박감과 몰입감은 최고조였다. 아마도 당분간 우리 뇌리에 이 곡의 잔향과 여음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반전의 겨냥과 연기의 목적

빅픽처스페이지 '코마'

◆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코마>는 산속 외딴집에 느닷없이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시작하는 연극이다. 이 외딴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치매를 앓으면서 움직임이 불편한 엄마와, 엄마 병수발에 찢찢 매는 딸이다. 두 여성은 자신 앞에 놓인 일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궁한 처지의 여인인데, 이러한 여인들만 사는 집에 체격이 건장하고 총을 든 남자가 찾아온다. 남자는 하룻밤의 유숙을 청했고, 남자의 딱한 처지를 들은 젊은 여성(딸)이 그 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면서, 위험한 동거가 시작된다.

연극적 긴장감은 이 동거에서 연원한다. 표면적으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입이 거친 노모가 사고를 치고 이에 격분한 남성이 금방이라도 두 여인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인해 긴장감은 고조되기에 이르고, 급기야는 남자는 자신이 외딴집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를 쏘았다는 말을 꺼내면서 위험한 동거는 절정에 달한다. 그러니까 <코마>의 플롯 구조는 남자와 여자(들), 건장함과 연약함, 침입자와 고립감, 총과 빈손 등의 격차를 강조하면서, 결국 강자와 약자라는 일반적인 피해 구도를 조성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 작품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지인 그리고 가족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엄 여인'류의 요녀를 모델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한다. '엄 여인' 혹은 '이은혜', 내지는 '고유정' 등으로 대변되는 여인들은 미약과 독약 등을 통해 남편과 가족을 살해하고 그 혐의에 따라 처벌을 받은 여인들이다. 특히 '엄 여인'으로 불리는 엄인숙은 두 명의 남편을 차례로 살해하고, 어머니와 친오빠를 실명하게 했으며, 자신의 집과 가사도우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희대의 악녀로 정평이 나 있다.

<코마> 역시 살해 욕구와 금전 획득의 욕망을 숨긴 악녀의 이면을 파헤치는 연극이다. 총과 수상한 상처를 지니고 외딴집에 들어온 남성은 이 여인의 술수에 의해 간단하게 제압된다. 그는 연약한 여인이 놓은 함정에 빠졌고, 자살하는 모친(실제로는 시모)을 대신하여 외딴집의 볼모로 사로잡힌다. 전후 사정을 볼 때, 이 남성은 실명한 채 당분간 젊은 여성의 구속 아래 놓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수령을 위한 희생양로 전락할 것이다.

Review



<코마>는 섬뜩한 전언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반전을 내장하고자 했다. 희생적인 딸의 순진한 얼굴은 실제로는 가면이고, 그 가면 아래에는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간직한 악녀가 도사리고 있다는 가정을 실현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연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건장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설득력이 결여되면서, 이 작품은 긴장감을 견실한 공연 미학으로 전환하지는 못했다.

다만 <코마>는 불청객 남성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선입견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연극 초반부터 체력적으로 열세일 것으로 생각되는 여성들이, 불청객 남성의 피해자 혹은 희생자가 될 위험 가능성을 세밀하게 조성하고, <코마>의 후반 서사는 이러한 위험의 착각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했다. 남성이 외딴집에 들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수상해 보였고, 그가 사격한 정황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다.

<코마>는 이러한 표면적 상황을 계속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극적 상황을 조성하는 데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 치매에 걸렸지만 예언 같은 직감을 발휘하는 노모는 남자에게 살인을 추궁하기도 했고, 연약해 보이는 여인은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정탐자)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남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깊은 사연을 간직한 것 같기도 했으며, 남자의 행동은 그만의 아집에 매몰된 듯한 인상까지 남겼다.

문제는 <코마>가 이러한 사전 설정을 궁극적으로는 반전을 타당성을 살려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위험해 보이는 남자는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남자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 같은 여자는 실제로는 위험을 가하는 악녀였다는 의외의 사실은 '선언'으로만 유효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선언을 메우기 위하여 그녀의 악행을 열거하는 데에 집중했다. 몸이 불편하고 정신까지 불편해 보이는 노모는 실제로는 피해자였고, 이 피해자는 실제로 젊은 여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여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계기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녀가 악녀라면 그녀가 악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들려주지 못했고, 그녀가 악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회적 정황도 의미 있게 일깨우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한 악녀의 특별하고 잔혹한 이야기 한 편



을 전해 들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

작가나 제작자들은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여인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물론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여성들이 분명 존재했고, 또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여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연극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극은 깜짝쇼나 반전(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의 묘미를 즐기는 연극에 머물고 말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무대에서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까지 읽을 수 있는지.

이러한 한계는 비단 희곡의 완성도나 서사적 흐름에만 지장을 준 것은 아니었다. 등장인물들의 연기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왔다. 그들은 무대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연기가 흥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더 살인자다운 여인, 그러나 더 깊숙하게 정체를 감춘 여인. 다른 한쪽에는 살인자 같은 인상을 풍기는 남성, 그러나 깊숙하게 그 정체를 따지면 살인자와는 거리가 먼 남성. 이러한 캐릭터 구축은 연극 관람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연기의 기본은 분명 흥내(미미크리)이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배우들이 현실의 인간들을 축약, 모사, 모방하기를 바라지만, 그때의 연기에는 현실의 인간을 무대까지 소환해야 하는 이유나 의미도 함께 내장되는 연기를 말한다. <코마>는 희곡에서부터 그러한 기미를 찾기 어려운 연극이었다. 연극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채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그것이 희곡 단계부터였든, 아니면 공연을 통한 재구성이든 간에 말이다.

부산문화회관

함께부르는 1절가곡제

일 시 | 7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루체데음악극연구소 513-1009



1920년대 초기 가곡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가곡의 역사를 훑아보는, KNN 엄상준 PD(‘음악, 좋아하세요?’의 저자)의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하는 ‘함께부르는 1절가곡제’. 그때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했던 아름다운 한국 가곡들을 불러보는 시간으로, 성악가가 1절을 부른 후 청중이 이어서 따라 부르는 무대와 객석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 해설/엄상준(KNN PD)
- 반주/백현주
- 소프라노/남순천, 강소영, 정애린
- 메조소프라노/김혜진
- 바리톤/박찬, 최모세

뮤지컬 장수탕 신너님

일 시 | 7월 2일-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6만원(만 24개월 이상)
 문 의 | (주)쌍크브릿지 1533-7446



지난 2012년 출간된 후 ‘한국출판문화상’, ‘창원 아동문학상’을 수상하고 1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어린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백희나 작가의 동명의 동화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장수탕 신너님’.

엄마를 따라 오래된 동네 목욕탕인 장수탕에 간 덕지가 냉탕에서 만난 이상한 할머니 신너님과 한바탕 신나게 놀며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수탕 신너님’은 부모 세대에는 친근하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낯선 공간인 오래된 목욕탕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억을 나눌 수 있다.

부산신포니에타제102회 정기연주회 부산신포니에타&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

일 시 | 7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신포니에타 010-8519-0448



현존하는 부산의 실내악단 가운데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부산 실내악의 살아있는 역사 부산 신포니에타의 102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신포니에타는 지난 1986년 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6년, 19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동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관악기주자로 선발되어 한국 목관악기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이 협연한다.

- 음악감독/김영희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독창회 인생을 노래하다

일 시 | 7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소연 010-5897-0388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제노바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외래교수, 아모로제성악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는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독창회.

박소연은 이태리 부살라 국제콩쿠르, 디 스테파노 국제콩쿠르, 마리온 한자 국제콩쿠르 등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그동안 독창회 및 협연, 갈라콘서트, 오라토리오,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는 헨델 ‘세르세’, 로날드 ‘삶의 여정’, 생상 ‘삼손과 데릴라’ 등 오페라 아리아로 꾸미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영화 OST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소영
- 아코디언/홍기쁨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명작가극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일 시 | 7월 2일(토)-8월 28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11시 공연은 단체관람)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요절복통 웃음 속에 노래와 율동이 함께하는 세계명작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힘을 합쳐 무서운 늑대를 물리치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 ‘서로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교훈적 내용을 전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어린이들이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캐릭터 탈을 쓴 배우들이 등장,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리듬의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 작/오계영
- 연출/오영섭
- 출연/박규한, 김성열, 정지수, 서예은 외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함께하는 비발디&피아졸라의 사계

일 시 | 7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지난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인재육성의 중심이 되고자 지역방송 최초로 창단된 KNN방송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최근 KNN방송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서희태가 지휘

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아코디언 연주자 알렉산더 셰이킨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인 비발디의 ‘사계’와 남미의 사계를 그린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지휘/서희태
- 바이올린/김응수
- 아코디언/알렉산더 셰이킨
- 연주/KNN방송교향악단

음악실험실 짜임 정기연주회 New Solo Pieces with Strings II

일 시 | 7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음악실험실 짜임 010-8212-0222

기존의 클래식음악을 다양한 악기편성으로 구성, 보다 새로운 짜임으로 재창작하여 연주하는 음악실험실 짜임의 무대.

솔로악기로서 저평가받고 있는 악기들을 무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무대는 잘 알려진 피아노반주의 소품곡이나 오케스트라 곡을 비주류 솔로악기와 현악반주를 위한 곡으로 재창작하여 들려준다.

음악실험실 짜임 대표 황선영이 편곡을 맡았으며 앙상블 아트의 현악반주, 임정빈(튜바), 황여진(비올라), 박승훈(트럼펫), 장예지(플루트), 유지훈(클라리넷), 우현수(더블베이스)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 국악칸타타 일향악 세계기

일 시 | 7월 7일 목요일 오후 7:30(※특별 초청공연)
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7일 공연 초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 칸타타 '일향악 세계기(一響樂 世界起)'는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린 부산,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로, 지난해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바 있다.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해온 시인 이청산이 노랫말을 짓고 우리만의 감성을 자극하는 김은혜가 작곡을 맡아 전통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작품으로 탄생시킨 '일향악 세계기'는 합창, 독창의 소리와 국악관현악 소리가 이중주를 이루며 '부산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네 개의 큰 주제

와 주제마다 3~5개의 작은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17곡에 이르는 대편성 국악관현악과 독창(소프라노, 바리톤, 카운터테너, 남창, 여창), 그리고 혼성합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김해시립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시립무용단, 그리고 정선희(여창), 최용석(남창), 김유섭(소프라노), 이희상(카운터테너), 강경원(바리톤) 등 정상급 소리꾼과 성악가들이 출연,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웅장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첫 공연에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소방관 등 팬데믹 기간동안 국민들을 위해 헌신한 관계자들을 특별히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지휘/김종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연출/이정운(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작곡/김은혜
- 작시·대본·내레이션/이청산
- 연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합창/김해시립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 무용/부산시립무용단
- 여창/정선희 • 남창/최용석
- 소프라노/김유섭
- 카운터테너/이희상 • 바리톤/강경원

최유리 해금 아홉번째 시대별 해금 창작곡 흐름에 대한 이해

일 시 | 7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최유리 010-3994-4674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금 연주자 최유리의 럭셔리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해금 창작곡의 시대적인 배경과 전개 양상을 통해 해금 창작곡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별 대표곡을 분석하며 실제 연주를 통해

연주법과 표현기법, 음악적인 특징이 어떻게 발전되어왔는가를 럭셔리콘서트로 통해 풀어본다.

- 해금/최유리
- 거문고/권은영
- 장구/하정희
- 현악5중주/소리앙상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일 시 |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9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만 11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춤추는 별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들려주는 달과 별의 하모니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지난 2014년 초연된 후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동생 테오 반 고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빈센트와 테오가 주고받았던 700여 통의 편지와 그가 남긴 수많은 명작들을 통해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카페 테라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 등 고흐의 그림이 3D 프로젝션 맵핑 등의 최첨단 영상기술을 통해 무대 위에 살아 움직이는 영상으로 생생하게 펼쳐진다.

(사)더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Nostalgia

일 시 | 7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50% 할인)
문의 | (사)더솔로이스츠 516-5999



현재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음악감독, 체임버 앙상블 에이블뮤직그룹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서진이 지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원로 음악가 김한기의 창작곡 '오케스트라를 위한 옹헤야 작품 282'를 비롯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일찍이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온 김응수는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매년 유럽 왕족들과 VIP들이 찾아오는 오스트리아 레히클라시페스티벌의 예술감독 및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

일 시 | 7월 9일(토)-10월 30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 7월 8일까지 얼리버드 50% 할인)
 문 의 | ㈜가우디움어소시에츠 1661-1079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행복의 화가(A painter of bonheur)'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첫 부산전시.
 국내 최대 규모의 마티스 회고전으로, 200여 점에 달하는 드로잉, 판화, 일러스트, 아트북 등 그가 남긴 방대한 원화 작품을 통해 '야수파'로 알려진 마티스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니스 바닷가의 파도 소리, 마티스 고향 평원의 바람 소리를 현지 울로케이션으로 촬영하여 담아낸 영상과 뮤지션 정재형의 음악, 그리고 미디어아트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티스의 예술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담아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전원경의 아트살롱(그림콘서트) 로마의 여름 햇살

일 시 |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1: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2천원(8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종사이버대 교수이자 예술전문 작가인 전원경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계절별로 세계의 다양한 도시로 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 도시의 예술문화와 작품이 탄생한 배경,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미술작품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아트살롱 '로마의 여름햇살'에서는 화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과 함께 리스트, 토마, 비제, 토스티 등 다양한 작품을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강연/전원경 • 피아노/김민정
- 소프라노/김유진 • 테너/장지현
- 반주/이승운

김해리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7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클래식예술기획 02-775-8600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터치, 유려한 테크닉을 지닌 피아니스트 김해리 독주회.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재학 중 도독, 만하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연주학(D.M.A)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해리는 Tadini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2위 입상을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김해리는 현재 아르케 컬처 전속 피아니스트, 아미띠에 트리오 피아니스트, 아르츠 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BKMC합창단 반주, 한국피아노듀오협회 회원으로 있으며 독주뿐만 아니라 실내악, 반주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일 시 |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이미 세계적으로 비르투오소적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는 연주자이자 지난해 지휘자로 데뷔한 김선욱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9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동유럽 최고의 페스티벌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만 15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음악계를 놀라게 한 첼리스트 한재민이 협연을 맡아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과 그의 교향곡 중 최고의 교향곡으로 평가받는 교향곡 제7번을 들려준다. 동세대 연주자 중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지휘자 김선욱은 지난 시즌 KBS교향악단과 지휘자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바 있다.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 시작 HAMLETIQUE

일 시 |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새롭게 재해석한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 시작 HAMLETIQUE'. 국립 파리8대학교 무대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다원예술프로젝트 컴퍼니 Performance Processing-Today 대표로 있는 연출가 강태욱이 연출한 이번 무대에서는 단원 황창기가 클로디우스, 이현주가 거트루드, 채민수가 테오 햄릿, 이태성이 호레이쇼 역을 맡는 등 부산시립극단 전 원들이 출연, 새로운 '햄릿'을 선보인다.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전국투어

일 시 | 7월 16일-1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 의 | ㈜스툼프뮤직 02-2658-3546



국내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음악으로 만나는 특별한 무대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부산공연. '메이플스토리'는 지난 2003년 론칭 이후 현재 1억 8천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유저 수를 보유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Past and Present'라는 콘셉트로, 게임은 물론 OST로도 사랑 받고 있는 '메이플스토리'의 OST 전곡을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와 대형 스크린의 인게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그동안 클래식은 물론, 영화 및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 등의 무대를 통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지휘자 안두현과 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의 만남으로 더욱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연계특강 앙리 마티스, 20세기 현대미술 의 문을 열다

일 시 | 7월 16일 토요일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4개 특강 패키지 4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내 최대 규모의 앙리 마티스 회고전과 연계하여 열리는 전시특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앙리 마티스, 20세기 현대 미술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미술평론가 박우찬이 마티스의 삶과 예술세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초보 화가 마티스가 현대 미술을 개척해 나가는 탐구 과정과 그의 집요한 조형 실험, 그리고 마티스를 20세기 미술의 개척자로 만든 야수파 미술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마티스의 미술이 추상 미술과 20세기 미술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더불어 미술의 두 아이콘인 피카소와 마티스의 라이벌 관계와 둘의 예술세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제이아트앙상블 어울림 콘서트 2022 행복투게더 두개다! 두배다!

일 시 | 7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제이아트앙상블 jartensemble@naver.com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지적 장애인들로 구성된 제이아트앙상블의 무대. 제이아트앙상블은 보디퍼커션, 국악, 라틴음악, 즉흥연주,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자유롭게 도전하며 전문가들로부터 인

정받고 있는 국내 유일한 단체로, 국내 및 국제교류 공연을 통해 세계 지적 장애인의 기본권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 예술감독/장애령
- 상임작곡가/박영란 · 지도강사/장우식
- 오보에/김운상 · 피아노/이도림, 김초하
- 드럼/김유나 · 퍼커션/심영건
- 게스트 멤버/김보라(소프라노)
- 스페셜 게스트/하마 마유미(마림바), 김지향(퍼커션), 윤현상(비브라폰)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II

일 시 | 7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합창단의 시원한 음악선물 '2022 Summer Fantasy'.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임희준이 지휘하고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 세션그룹 2310밴드, THE

STRING PLAYERS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시간(時間)II'라는 부제, 한 사람의 사랑, 이별, 희망 등 시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드라마 같은 무대를 선보인다.

- 지휘/임희준(부지휘자)
- 연주/2310밴드, THE STRING PLAYERS(바이올린 유수진, 김채빈, 비올라 이선우, 첼로 김진경)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W.C.W.S 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7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한국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피아니스트 홍민수, 두 젊은 연주자의 환상적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는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W.C.W.S) 세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네덜란드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피아니스트 홍민수의 환상적인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 바이올린/임지영
- 피아노/홍민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24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한국의 대표적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 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특히 2014년 부산 민간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서울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2003년·2004년 문화관광부 주최 전국 순회음악회에 지역교향악단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역문화 창달에도 기여했다.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고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올해로 탄생 150주년을 맞은 영국

의 유명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사랑이 담긴 선율 '푸른 옷소매 주제에 의한 환상곡'에 이어 핀치의 대표작 '클라리넷 협주곡', 그리고 정열적이고 강렬한 리듬으로 여름바다가 떠오르는 멘델스존 교향곡 '이탈리아'를 들려준다.

지휘자 오충근은 제48대 난파음악상,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 부산클래식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다.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특별 음악학교, 프랑스 말레중 국립음악원,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클래식음악제(BCMF) 예술부감독,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 오케스트라(EOPO)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지휘, 예술감독/오충근(부경대학교 석좌교수)
- 협연/백동훈(클라리넷)
- 해설/조희창(음악평론가)



포르투나 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바이올리니스트 박미정, 홍기정, 김다경, 이상엽으로 구성된 포르투나 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에서 유일하게 4대의 바이올린으로만 결성된 앙상블 단체로,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근접한 소리를 가진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지난 2011년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피아노5중주 작품 114 D.667 '송어' 4악장
- 쇼스타코비치/5개의 소품
- 모차르트/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마술피리 비제/카르멘 판타지 등
- 연주/박미정, 홍기정, 김다경, 이상엽
- 피아노/하수민
- 특별출연/테너 이태흠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2_부산 앙코르

일 시 | 7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1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문 의 | 라이브러리컴퍼니 070-4190-1289



지난 5월 전석 매진으로 성황리에 공연을 펼쳤던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앙코르 무대. 이번 무대는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 스튜디오의 모든 음악을 작곡한 최고의 영화음악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히사이시 조의 다양한 작품들을 풀 편성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선보이는 영화음악 콘서트로, 올해 리뉴얼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연이은 매진 신화를 기록한 바 있다.

- 지휘, 피아노/김재원
- 바이올린/김영준
- 첼로/배성우
- 오보에/고관수
- 연주/WF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2 부산버스킹페스타-B·B·B

일 시 | 7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 지역 청년예술인 발굴과 부산 대중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2022 부산버스킹페스타-B·B·B. 이번 무대는 2022 부산 버스킹페스타-B·B·B 본선무대로, 지난 5월 24일 서류 및 영상심사에 이어 6월 4일부터 12일까지 광안리, 서면 버스킹 실연을 통해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참가하여 대상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대상 1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500만원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등 모두 5개팀이 선정된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지난해 JTBC '싱어게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부산 출신의 가수 정홍일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 예술감독/김종균(락인코리아 대표)
- MC/조태준
- 게스트/가수 정홍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화-With

일 시 | 7월 30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매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단원들과 외부 연주자들의 콜라보 무대로 펼쳐진다.

오후 4:00 **출연 단원**
 출연/김선영(바이올린), 이현지(비올라), 정예빈(첼로), 서가영(바이올린), 전성해(더블베이스), 신예은(혼), 김수정(첼로), 윤서영(비올라)

오후 7:30 **출연 단원**
 출연/김서현(첼로), 김예빈(바이올린), 송예빈(비올라), 장선아(첼로), 김가원(바순), 차희주(바이올린), 김유경(바이올린), 김예진(비올라), 윤지영(첼로), 박민지(바이올린), 김하영(바이올린), 정하람(비올라), 성아란(첼로), 최예린(바이올린)

- 지도, 지휘/이명근
- 사회/오동주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31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010-9322-1754



지난 2002년 9월 창단 이후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눔과 배려를 익히고 있는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제19회 정기연주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주 일요일, 정기적인 연습과 여름, 겨울음악캠프를 통해 음악적 기량을 높이고 매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벤자민 브리튼, 히사이시 조, 오스카 리딩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요섭
- 협연/박성현(바이올린)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6대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악문화예술교류 축제

일 시 | 7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문 의 | (사)부산국악협회 644-5211



6대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예술이 한자리에 만나 국악으로 하나되는 교감을 완성하고 성공적인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국악협회를 비롯해 광주국악협회, 대구국악협회, 대전국악협회, 울산국악협회, 인천국악협회, 제주도국악협회 등 7개 국악협회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국악 무대를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악의 아름다움과 각 지역의 특색을 뽐내 전통문화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무대이다.

부산시립예술단 기획공연 토코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일 시 |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8일 금요일 오전 10:30(단체관람), 9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21년 오페라워크 관람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부산지역 청년성악가 8
인을 주역으로 선발하며
제제를 모은 부산시립예
술단 토코오페라 세비아
의 이발사.
이번 무대는 오페라에 정
통한 부산시립청소년교
향악단 수석지휘자 이명
근과 최연소 국립오페라
단 상근연출자로 활동한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
가 의기투합해 만든 무대로, 오페라에 대한 이해
와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갈라무대이다.
특히 지역 오페라 무대를 이끌어갈 청년성악가
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 39세 이하의 부산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했으며, 오디선
을 통해 로지나와 피가로를 3명씩 선발, 3인 3색

의 개성 넘치는 로지나-피가로에는 소프라노 오
예은, 박나래, 전은혜, 바리톤 이태영, 유용준, 시
영민이, 알마비바에는 강도호, 바르톨로에는 박
순기가 캐스팅되었다.
이번 무대는 한 편의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이
해하기 위한 갈라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석
지휘자 이명근이 이끄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
단의 라이브 연주와 연출가 이의주의 아이디어
넘치는 연출, 토코로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토
코 중에는 추첨을 통해 관객을 선정, 그 자리에
서 라이브로 오페라 분장체험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 지휘/이명근 • 연출, 해설/이의주
- 로지나/오예은(7일), 박나래(8일), 전은혜(9일)
- 피가로/이태영(7일), 유용준(8일), 시영민(9일)
- 알마비바/강도호 • 바르톨로/박순기



2022 이승환 콘서트 우리 그때_1989-1991

일 시 | 7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4만3천원, S석 12만1천원
문 의 | ㈜블리스이엔티 010-3273-4004



콘서트에 대한 열정과 생
동감 넘치는 무대 등으로
'공연의 신'이라 불리는
가수 이승환 콘서트 '우
리 그때_1989-1991'.
이승환은 국내 최초로
전국 공연 투어에 이름
을 붙여 브랜드화하면
서 1999년 무적투어,
2001-2002년 SSEN CONCERT, 2005년 이승
환의 난 '亂李' 투어 등을 가졌으며, 지난 2019년
에 열린 '라스트 빠데이-괴물' 콘서트에서는 단
한 명의 게스트도 없이 9시간 30분이라는 단독
최장 공연 시간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텅빈 마음,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좋은 날, 너를 향한 마음, 세상에 뿌
려진 사랑만큼 등 세련된 팝 발라드의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1, 2집 음반의 수록곡을 들
려준다.

현대무용단 자유 (+82)그대, 안녕하십니까?

일 시 | 7월 24일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현대무용단 자유 010-8541-3428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예술
가 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현대무용단 자유
대표 이연주의 창작춤판.
'우리에게 노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노동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
문으로 시작한 이번 작품
은 노동자들의 삶에서 발
견한 불편한 현실을 담아내고, 모순과 억압이 많
은 노동현장에서 불안한 정신과 붕괴된 신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양한 감정, 표정, 제스처, 호
흡, 에너지를 통해 표현한 작품으로, 노동의 가치
를 잃어버린 현실에 대해 되돌아보고 힘겹게 살
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넨다.
현대무용단 자유는 1995년 창단된 전문 무용단
체로, 부산을 기점으로 꾸준한 창작활동을 펼쳐
왔으며, 매회 새롭고 다양한 공연을 시도하며 왕
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보물섬

일 시 | 7월 27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지정좌석제,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예술
의전당 우수 공연 콘텐츠
를 공연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2022 문
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
품극장'.
7월 상영회에서는 로버
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동
명의 소설을 개작한 작품
으로, 기발한 상상력과 심장을 전율케 하는 로
큰롤이 결합하여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모험극으로 재탄생된 연극 '보물섬'이 상영된다.
어머니와 함께 여인숙을 운영하는 소년 짐 호킨
스는 어느 날, 의문의 죽음을 당한 손님의 짐에
서 발견된 한 장의 보물지도를 통해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배우들이 빛어내는 현란한 움
직임과 언어의 마술, 4인조 밴드의 라이브연주
까지 더해져 시선을 사로잡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팬레터

일 시 | 7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31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14세 이
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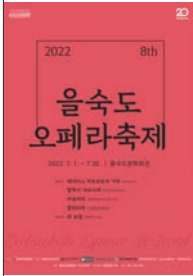
작품성과 대중성, 화제성
까지 흥행 3박자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팬레터'.
'매력적인 스토리와 아름
다운 음악의 가장 이상적
인 조합'이라 호평받는 웰
메이드 창작뮤지컬로, 일
제강점기 시절, 천재 소
설가 김해진과 그를 동경하는 소설가 지망생 정
세훈, 비밀에 싸인 천재 여류작가 히카루까지 세
인물을 주축으로,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문
인들의 예술혼과 사랑을 그려낸 작품이다.

- 연출/김태형 • 작, 작사/한재은
- 작곡/박현숙 • 안무/신선호
- 출연/이규형, 김진욱, 윤소호, 허혜진, 소정화,
박정표, 임별, 장민수, 김보현

음악

2022 제8회 을숙도 오페라축제

일 시 | 7월 1일(금)-30일(토)
 을숙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을숙도문화회관이 오페라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제8회 을숙도 오페라축제. **창작오페라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 [개막작]** 7월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4:00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김포문화재단, (주)오픈시어터가 공동주관하여 제작한 창작오페라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 이번 무대는 한국전쟁 중 가장 많은 피난민들을 화물선에 실어 부산과 거제도로 인도한 레너드 라루 선장과 기적의 배 메리디스 빅토리호를 오페라로 제작한 작품이다.

• 입장료/초대
한 여름밤의 오페라 여행
 7월 5일(화) 오후 7:30 소공연장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작곡가별로 다양하게

편성하여 한 여름밤 아름다운 선율에 취해보는 이태리음악연구회의 '한 여름밤의 오페라 여행'.
 • 입장료/전석 5천원(예매시 20% 할인)

창작오페라 '말뚝이 가라사대'
 7월 9일(토) 오후 2:00, 6:00 대공연장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과 서양 오페라의 특성을 잘 융합하여 새로운 장르로 탄생한 창작오페라 '말뚝이 가라사대'.
 부산감머오페라단이 제작한 이번 무대는 서양 음악 배경에 우리나라의 민속 음악적 요소들을 주로 사용하여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 입장료/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뚝! 자른 재미있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7월 12일(화) 오후 7:30 소공연장

원작에 로맨틱과 재미를 더한 도니체티의 가장 사랑받는 수작 '사랑의 묘약'을 주요 아리아를 통해 만나는 온누리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오페라에서 대사를 노래하듯이 말하는 형식인 '레치타티보'를 한국말 대사로 처리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 입장료/전석 5천원(예매시 20% 할인)

콘서트 오페라 '온 가족이 즐기는 마술피리'
 7월 16일(토) 오후 4:00 대공연장
 오페라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편안하고 다채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배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오페라.
 • 입장료/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기악으로 듣는 오페라 '아리아 이야기'
 7월 19일(화) 오후 7:30 소공연장
 각 오페라의 내용과 가사를 해설과 함께 기악으로 듣는 카메라타 부산의 '아리아 이야기'.
 • 입장료/전석 5천원(예매시 20% 할인)

오페라 '팔리아치'
 7월 23일(토) 오후 4:00 대공연장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함께 대표적인 베리스모 오페라로, 작은 유랑극단의 단장인 카니오가 아내 넷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치정 관련 비극을 그린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드림문화오페라단이 제작한 이번 무대는 여주인공 넷다를 통해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 입장료/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오페라 '라보엠' [폐막작]
 7월 30일(토) 오후 2:00, 6:00 대공연장

2022 을숙도 오페라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 입장료/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제39회 짜장콘서트 거품 짝뻔 오페라:동백아가씨

일 시 | 7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약, 선착순 50명)
 문 의 | 음악풍경 010-3091-1524



1948년 국내 최초로 소개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소규모 편성으로 구성하여 선보이는 제39회 짜장콘서트.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알프레도와 비올레타의 순수하지만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

으로, 가장 즐겨 공연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번사(辯士)의 내레이션에 따라 아리아 중심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왕기현(비올레타), 테너 양승엽(알프레도), 바리톤 강경원(제르몽)이 출연, 주요 아리아를 들려주며 연극배우 배문수가 번사 역할을 맡아 맛깔스러운 진행을 선보인다.

• 연주/원아름(바이올린), 문혜정(첼로), 정은희(피아노)

여류명창 가음 창단공연 여류명창전 적공(積功)

일 시 | 7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여류명창 가음 010-9134-2116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류명창 5인이 뜻을 모아 결성한 여류명창 가음(佳音)의 무대. 박성희는 제12회 장흥전통가무악전국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 수석 단원으로 있다. 최영인은

제19회 남도문화재 특장부문 대상, 제45회 전주대시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수상했으며, (사)국악예술단 '소리연' 대표로 있다. 국립창극단 부수석으로 있는 김미진은 제22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명창부 대통령상을, 동초제 판소리 대표로 있는 서정민은 제22회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노해현은 '노해현 그리고 판소리' 대표로 있으며 제20회 임방울국악제 판소리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오상설공연 onStage 국악그룹 락드림 놀고가려던~!

일 시 | 7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대한민국 최초의 퓨전 국악 서바이벌 오디션 'K-소리로 싹 가능, 조선판스타로 얼굴을 알린 국악그룹 락드림의 초청무대. 'Republic Of Korea Dream'의 약자로, 대한민국 꿈과 더불어 동시에 즐거운 음악(樂)을 준

다는 뜻의 '락드림'은 소리꾼 이밖음을 중심으로 황가연(장구), 박한결(타악), 추현탁(가야금), 유성희(피리·태평소·생황)로 구성된 국악밴드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기로 연주하는 재즈음악인 '재즈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창작 국악곡 연주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단인 세마치 장단을 배워보는 국악기 체험과 샌드아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샌드아트/채승용

7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27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당일 현장 구매)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금정수요음악회 7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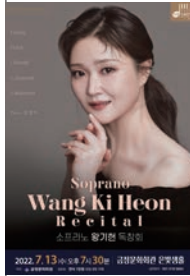
6일(제784회) 김용원 바순 독주회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바순니스트 김용원 초청 제784회 금정수요음악회.

부산예고 재학 중 도독, 함부르크 국립음대와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용원은 ASJ 오케스트라 바순 수석으로 미국 시카고 순회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박은혜

13일(제785회) 소프라노 왕기현 독창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시립음악원과 뻘아첸자 국립음악원



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왕기현 독창회. 왕기현은 현재 경성대학교, 부산예고를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김경미



20일(제786회) 안병건 귀국 플루트 독주회
 '잊혀진 여성 작곡가들' 현재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레앙양상블, 슈아브양상블 멤버로 활동 중인 플루티스트 안병건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도독,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한 안병건은 일찍이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한편, 금호영체임버 아티스트로 발탁되어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바이올린/진혜빈 • 피아노/박소진

첼리스트의 서재 음악회 영화, 음악, 책 바다를 품다

일 시 | 7월 9일 토요일 오후 2:00
첼리스트의 서재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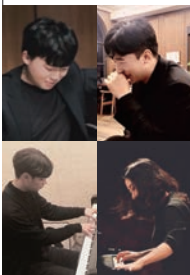


해운대 송정에 위치한 문화공간인 '첼리스트의 서재'에서 주최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여행. 이번 무대에서는 섬세하면서도 기품있고 대담한 연주를 들려주는 첼리스트 이명로의 연주와 해설로 진행된다.

이명로는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체코로 유학, 프라하 국립음악원에서 전액국비장학생으로 체코의 거장 첼리스트 미로슬라프 페트라스를, 계명-소평음악대학교에서는 폴란드 출신의 야로스와브 돔잘을 사사했으며, 그동안 9차례 독주회와 앙상블, 오케스트라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스페이스움 7월 율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8일(제463회) 피아노앙상블 사진
 피아니스트 이정혁, 신재화, 한성혁, 최은영으로 구성된 피아노 앙상블 '사진'의 무대.

운명처럼 다가온 피아노, 삶을 빛나게 해 준 음악,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희열과 에너지를 청중과 무대에서 공유하고자 창단한 '사진'은 이번 무대에서 독주곡과 앙상블 무대를 통해 클래식 숨겨진 미묘한 매력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프로그램

- 쇼팽/에튀드 작품 10 제1번
- 쇼팽/발라드 제1번 작품 23
- 라흐마니노프/피아노소나타 제2번 작품 36 제1악장
- 프로코피예프/피아노소나타 제3번 작품 28 등

15일(제464회) 한 여름밤의 선율
 테너 김현식, 최현규, 베이스 문동환이 들려주는 한 여름밤 가곡의 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슈트츠의 가곡과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음악에 불임, 세레나데, 방장자, 송어 슈트츠/비엔나의 아름다움은 밤부터 시작되고, 프라터공원의 나무에 다시 꽃이피고 등
- 피아노/김은실



22일(제465회) 앙상블 플리르 '냉정과 열정'
 바이올리니스트 진혜빈, 김충만, 비올리스트 김지일, 첼리스트 윤성민, 베이스리스트 윤민우 등 5명의 현악주자로 구성된 앙상블 플리르의 무대. '플리르'는 프랑스어로 '꽃'

이라는 뜻으로, 여러 꽃들로 화원을 꾸미듯 5인 5색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29일(제466회) 플루트&피아노 듀오 콘서트 'Joy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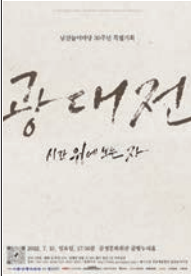
스코틀랜드왕립음악원 출신으로 2012년 에딘버러 페스티벌 초청콘서트로 호평을 받은 플루티스트 박은아와 오스트리아 린즈 브루크너 오케스트라와 Linz Musiktheater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나경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팬데믹 속에서 잊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존 레니쉬/소나타 나단조
- 끌로드 볼링/아일랜드의 여인
- 비제/'아름의 여인' 중 미뉴엣
- 이안 클라/최면
- 존 루터/고풍 모음곡

남산놀이마당 30주년 특별기획 광대전:시간 위에 노는 자

일 시 | 7월 10일 일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예매 및 학생 50% 할인)
 문 의 | 남산놀이마당 516-4434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는 남산놀이마당이 오랜 세월을 기반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남산놀이마당 출신 광대들을 한자리에 모아 펼치는 전통연희의 종합판 '광대전:시간 위에 노는 자'.

30여 명의 전문연희자들이 연출해 내는 때판굿(집단풍물판굿)을 비롯하여 대고, 오북, 덧배기춤, 판소리, 고깔소고, 지신밟기소리, 영남북춤, 채상놀이, 버나와 죽방울 놀이 등 다채롭게 펼쳐지며, 특히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11-1호 진주삼천포농악 인간문화재 김선옥 옹이 출연하여 스승과 제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7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신포니에타 010-7671-2320, 611-6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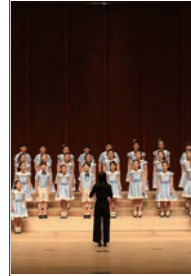
지난 1986년 창단, 올해로 창단 36주년을 맞는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가 부산의 미래를 빛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독일 바이마 프란츠 리스트 국립음악대학 학사, 석사과정을 마친 후 라이프치히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독일 아헨 국립극장 수석지휘자로 활동 중인 정찬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세대 청소년 유망주들이 출연, 다양한 협주곡과 아리아, 한국가곡 등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김영희
- 지휘/정찬민

2022학년도 창단 16주년 기념 남문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4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남문초등학교 550-0593



배려와 나눔, 존중으로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가꾸어가는 남문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남문합창단의 2022 정기연주회. 남문합창단은 그동안 2006년 부산119소방동요대회 은상 수상을 시작으로, 전국안전동요제

전국 대상(2008년), 전국새잎동요제 대상(2012년), 부산119소방동요대회 금상(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부산119소방동요대회 대상(2019년) 등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 담당교사/김성진
- 지휘/노주은 • 반주/박은하
- 사회/김성진
- 특별출연/사물놀이 동아리, 바리톤 김경한

제15회 부산작곡마당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작곡마당 513-1009



지난 2006년 '장르와 전공을 초월하여 작곡활동을 하고자 하는 작곡가들이 함께 한다'는 취지로 구성된 부산작곡마당의 15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정기연주회, 기획 연주회를 개최하며 부산 지역의 창작음악 활성화

에 기여해온 부산작곡마당은 지난 2020년에는 금정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열린 창작음악극 '금어기행'을 공동 창작형식으로 작곡하여 당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회원들의 창작곡과 더불어 부산작곡마당이 주최한 작곡 공모에서 당선된 김영진, 김규리의 곡을 들려준다.

- 작곡/신동일, 오세일, 박현주, 홍수정, 진소영, 노재봉, 김종완, 김하은

황순빈 바이올린 독주회 여행 Voyaga

일 시 |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황순빈 010-4560-5322



따뜻하고 섬세한 음색의 바이올리니스트 황순빈과 함께 떠나는 한여름밤의 음악여행.

서울대학교 음대 졸업 후 도미, 맨하탄음대 석사과정을 수학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황순빈은 2005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솔리스트로 매년 테마가 있는 독주회로 호평을 받아 왔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폭넓은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황순빈은 2020년 첫 솔로 음반을 발매했으며, 2015년부터 국민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작곡가 흥난파의 주제선율로 작곡된 김한기의 '고향의 봄'을 시작으로 전 세계 작곡가들의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이영 귀국 피아노 반주 리사이틀

일 시 | 7월 16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당일 현장 구매)
 문 의 | 이영 010-5513-1441



국내외 다수의 무대에서 반주 및 실내악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영의 귀국 독주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성신여자대학교 반주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도미, 샌프란시스코 컨서바토리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영은 김 카슈카시안, 레이첼, 신연 황, 시몬 제임스,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 리처드 용재 오닐 등과 같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연주했으며, 국내외 주요 음악무대에서 음악코치, 공식 반주자로 명성을 얻었다.

- 테너/이우정, 강도호
- 소프라노/이연진 • 클라리넷/손은혜

강지영박상현 사제 피아노 듀오 음악회

일 시 | 7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박상현 010-2469-9444



스승 강지영과 제자 박상현이 마련하는 사제 피아노 듀오 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에 술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가르침을 받은 제자 박상현에게 스승 강지영이 음악회를 제안하면서 마련된 무대로, 지난 9년간 호흡을 맞춰온 사제 간의 앙상블 무대가 기대된다.

프로그램

- 포레/돌리 모음곡 작품 56
- 베토벤/소나타 작품 27 제2번 '월광'
- 쇼팽/발라드 제3번 내림마장조
- 아렌스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15
- 피아졸라/아다오스 노니노, 오블리비언
- 라벨/라 발스

부산리코더앙상블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리코더앙상블 010-2562-6561



소통하는 리코더앙상블과 음악교육을 꿈꾸는 부산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리코더의 전성기였던 바로크곡과 클래식은 물론 가요, 재즈, 국악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온 부산리코더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르네상스 작곡가인 토마스 몰리, 윌리엄 버드, 바로크 시대 작곡가 바흐의 곡을 비롯해 알토리코더 이중주곡으로 헨델과 텔레만의 곡을 반음이 낮은 415Hz 알토 리코더로 연주하여 바로크 시대를 재현하며, 현대작곡가 엠마누엘 샤브리예, 레리 번스타인, 실비아 C. 로진 등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들려준다.

- 연주/강희숙(리더), 박선숙, 최유미, 최유리, 서동욱, 김현숙, 나운경

김예진 작곡 발표회 正歌 & Classic

일 시 | 7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예진 010-5697-9306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학사, 석사 과정 졸업 후 동대학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작곡가 김예진의 첫 작곡 발표회. 우리나라 전통가곡인 정가(正歌)와 클래식 창작가곡을 융합하여 새로운 창작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초연 창작곡과 기존의 창작곡을 재구성하여 총 7곡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정가에 대한 음악적인 분석을 통해 전통음악이 가지고 있는 시김새, 선법 등을 서양 작곡 기법으로 표현하고, 클래식 창작가곡에 국악기를 접목시켜 새로운 창작음악을 시도한다.

해운대문화회관 The e-글림 콘서트 미니오페라콘서트 돈 파스칼레

일 시 | 7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부산지역 성악가들이 선사하는 미니 오페라 콘서트 '돈 파스칼레'. 도니체티 최고의 희극 오페라 '돈 파스칼레'는 이태리 오페라 부파 전성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사랑의 묘약',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함께 이탈리아 3대 코믹 오페라로 꼽힌다. 주인공들에게는 고난도의 테크닉이 요구되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베이스 김성진이 돈 파스칼레, 소프라노 이윤지가 노리나, 테너 이해성이 에르네스토, 바리톤 김기환이 마라테스타 역을 맡아 노래하며, 배우 이지, 장모세가 서울여, 부산남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극 내용을 전달한다.

- 피아노/정지아

국립오페라단 초청 서정오페라 브람스

일 시 | 7월 23일 토요일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지난해 5월, 장르적 실험으로 국립극장에서 초연 무대를 가진 후 많은 호평을 받은 국립오페라단의 신작 오페라 '브람스'. 서정오페라 '브람스'는 14살 연상의 클라라 슈만을 평생 마음에 품고 평생 독신으로 삶을 마감한 브람스의 생애를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오페라로, 영혼을 뒤흔든 숙명적 사랑이 담긴 이야기와 함께 브람스와 슈만, 클라라의 서정미 넘치는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다.

- 지휘/여자경
- 출연/양준모, 정혜옥, 신상근, 손정범
- 연주/클림오키에스트라
- 합창/위너오페라합창단, 노이오페라코러스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III 토요 렉처 콘서트 이탈리아 로마 예술여행

일 시 | 7월 23일 토요일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정영홀
 입장료 | 무료(사전신청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7월 한 달간 열렸던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두 번째 시간 '이탈리아 로마 예술여행'을 마무리하는 렉처 콘서트.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은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와 박물관을 찾아 역사와 예술가들의 삶과 철학을 살펴보는 인문학 강좌로, 인문학 강사이자 콘서트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4주간 진행되었던 강좌내용을 토대로 예술작품 감상과 함께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 바리톤/유용준 · 피아노/김경미

한스 짐머 게임영상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 7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80



영화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의 음악과 게임영상이 결합된 특별한 무대 '한스 짐머 게임영상·영화음악 콘서트' 영화음악의 세계적인 거장 한스 짐머가 직접 참여하여 런던필하모니와 녹음한 게임음악이 영상과 함께 펼쳐지는 융복합판타지 공연으로, 42인 조 코리아트 필하모니가 재현하는 한스 짐머 작곡의 게임·영화음악이 70개 음향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작곡가 한스 짐머는 그동안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인터스텔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다크 나이트 라이즈', '글래디에이터', '인셉션', '라이언킹' 등 다양한 영화음악을 작곡했으며 2010년 할리우드 필름 어워드 '올해의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다.

2022 을숙도 청년예술인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 II js기타의 '숨표II'

일 시 | 7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을 위해 을숙도문화회관이 특별히 기획한 '청년콘서트 시리즈' 두 번째 무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기타의 매력을 드러내는 'js기타(정성기타)'의 무대로, 기타리스트 고정연, 고성연을 주축으로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이 솔로, 듀오, 콰르텟 등 다양한 구성으로 우리 귀에 익은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공연 타이틀 '숨표'처럼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고단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잠시 쉬어가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해준다.

2022 구군문화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 김성민&허종훈의 오페라떼 콘서트

일 시 | 7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예약 필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



지난 10년간 이탈리아 바티칸박물관에서 1,000회 이상 해설을 한 콘서트가이드 김성민과 유럽 현지 주요극장에서 10년간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허종훈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오페라떼 콘서트'. 서양화가가를 주제로, 관련 작품과 음악이 함께하는 융복합콘서트로, 이번 무대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와 미켈란젤로(1475~1564)를 주제로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 소프라노/강수진
- 바이올린/김성빈
- 첼로/김혜지
- 클래식기타/김경태
- 피아노/김경미

미니 오페라 콘서트 세빌리아 이발사

일 시 | 7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티시의 대표작이자 희극 오페라의 진수로 꼽히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오페라 콘서트로 만날 수 있는 무대.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마을의 만능 해결사인 이발사 피가로가 본인의 기발한 재치와 재주로 늙은 후견인과 결혼 위기에 있는 아름다운 로지나와 그녀를 사랑한 알마비바 백작의 사랑을 이루게 해주는 유쾌한 코믹 오페라로, 일반 청중들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리톤 정승화가 피가로, 바리톤 한정현이 바르톨로, 소프라노 이주진이 로지나, 테너 홍지형이 알마비바 백작, 베이스 박상진 이 바질리오 역을 맡아 관객들과 만난다.

- 연출/정승화
- 피아노/민준호
- 해설, 배우/선승일

2022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피아니스트 김수연 낭만주의의 겨울

일 시 |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지난해 제19회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으로서의 최초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수연의 무대로 꾸며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김수연은 2020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준우승, 2014년 요한네스브루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2018년 헤이스팅스 피아노 협주곡 콩쿠르 2위에 올랐으며 2021년에는 벨기에 퀴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유일한 여성 및 한국인 세미 파이널리스트이자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세미 파이널리스트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주의의 겨울'이라는 주제로 낭만주의 절정의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대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부산예술회관 기획 문화가 있는 날 예감: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국악 실내악단 길

일 시 | 7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www.bsart.or.kr



예술과 더불어 일상을 돌아보는 심포의 시간, 부산예술회관 '예감: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7월 무대. 경북무형문화제 제34호 '홍보가' 이수자이자 제39회 동래전국전통경연대회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소리꾼 조아라가 이끄는 국악실내악단 길의 출연한다. 지난 2017년 창단 국악실내악단 길은 그동안 부산,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 전통성과 대중성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청사초롱, 비나리, 광대가, 연월가, 잔치, 난장 판, 셋길 등 전통음악과 현대 창작의 조화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연극

제9회 굿모닝 콘서트
여름숲의 악센트

일 시 |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 배의 기쁨을 누리는 을숙도 음악산책 굿모닝 콘서트.

7월에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과 여성목관연주자들로 구성된 라 포레 우드윈드앙상블의 무대가 펼쳐진다.

목관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색과 아름다움을 담은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편하게 다가서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라 포레 우드윈드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청량한 여름숲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목관앙상블을 들려준다.

연극 완벽한 커튼콜

일 시 | 3월 24일(목)-7월 17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7/7,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분장실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한 번에 두 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신선한 시도, 그리고 파격적인 웃음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연극 '완벽한 커튼콜'. 연극 '설혹홀즈'가 무대에 오르는 날, 분장실에서는 공연 전 준비로 정신이 없다. 드디어 작품이 무대에 오르지만, 시작부터 실수 연발, 설상가상으로 무대 뒤에서는 공연은 뒷전인 채 배우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공연 중 발생한 기상천외한 사건들로 NG를 낼 수 밖에 없는 배우들의 해프닝과 그 모습을 실제 공연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관객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스태프까지 실제인지 공연인지 헷갈리는 기막힌 무대가 펼쳐진다.

2019년 한류문화대상 연극
뷰티풀라이프

일 시 | 5월 19일(목)-7월 1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탄탄한 스토리와 휴먼 코미디 장르 특유의 감동으로 대하로 흥행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창작극 '뷰티풀라이프'.

지난 2019년 한류문화대상 뮤지컬/연극부문 수상작으로, 평범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벌어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잔잔하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낸 '뷰티풀라이프'는 청년시절부터 노년시절의 초성과 순옥을 심도있게 표현해내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는 스토리로 색다른 감동을 전해준다.

극단 해풍의 첫 번째 레퍼토리 공연
타미카레드

일 시 | 6월 30일(목)-7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3만원(예매시 2만원)
 문 의 | 극단 해풍 010-2464-3312



'부산에서 부는 해학과 풍자의 바람'이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 창단한 후 2019년부터 북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해풍의 2022년 기획공연 '타미카레드'.

부산의 소설가 정광모의 단편소설집 '존슨기억판매회사' 속 단편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로봇 연인을 구매하고, 반납하는 일식 레스토랑 '타미카레드'를 배경으로, 인간과 로봇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와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 원작/정광모
- 각색, 연출/이상우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제10층

일 시 | 7월 12일(화)-24일(일) 오후 8:00 (월요일 공연없음) 어댑터플레이스
 입장료 | 전석 3만원(13세 관람가)
 문 의 | 어댑터플레이스 010-4868-2862, www.adapter-gwangalli.com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배우 중심의 무대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창단한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배·관·공)의 '제10층'.

지난 1969년故 이재현 작가가 발표한 '제10층'은 일상적이며 동시에 철학적인 대사가 시작으로 어우러진 2인극으로, 10층에 올라가려는 선생과 10층이 없다고 믿는 9층 건축기사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 관객들은 두 인물의 치열한 고뇌와 갈등을 통해 우리 자신이 몇 층쯤에 있는지 진실하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작/이재현
- 연출/주혜자
- 출연/엄지영, 김진주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일 시 | 7월 16일 토요일 오후 2:00,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영원한 가객 김광석의 노래와 우리들의 삶의 풍경을 담아낸 창작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19회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바람'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실적

인 문제를 겪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다 잊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꿈과 사랑, 우정,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고 20년 만에 콘서트를 열게 된다는 내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가장 '김광석다운' 뮤지컬로 평가 받는 작품이다.

지난 2012년 김광석의 고향 대구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지난 10년 동안 소극장 뮤지컬로서는 드물게 누적 관객 15만 명을 기록하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30여개 도시에서 700회 이상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2022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일 시 |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북구문화예술회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예매시 2만5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문의 | 진엔터컴 1566-7356



독일의 유명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베스트셀러 동화를 원작으로 한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어느 날 땅 위로 고개를 내민 두더지의 머리 위에 똥무더기가 떨어진다. 잔뜩 화가 난 두더지는 범인을 찾으러 나서고 토끼, 젓소, 말 등 여러 동물들을 만난다. 하지만 똥 전문가 파리가 알려준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으나... 이번 무대에서는 귀여운 동물 분장을 한 배우들이 신나는 음악, 율동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한편, 논리적인 추리와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사고력과 판단력, 관찰력을 키워준다.

연극 빛꽃동산

일 시 | 7월 27일-28일 수-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2022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우수 민간예술단체로 선정된 '예술공동체 갈'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연극 '빛꽃동산'.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대표적인 희극이자 그의 마지막 작품인 '빛꽃동산'은 '꿈꾸는 인간, 꿈만 꾸는 인간, 그리고 꿈조차 없는 인간'들의 웃픈 이야기를 경쾌하면서도 희극적인 분위기로 풀어냈다. 특히 원로배우 김재건을 비롯하여 이주화, 김용희 등 연극계의 보석들이 출연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 연출/최영환

창작뮤지컬 굿 세워라 금순아

일 시 | 7월 30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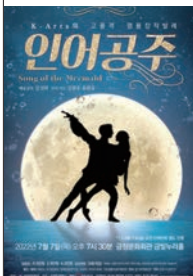
민속신앙인 굿을 소재로 전통 마당놀이 형식에 사물놀이와 가무를 결합한 독창적인 창작극 '굿 세워라 금순아'. 그동안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극을 제작해온 서울예술단의 창작뮤지컬로, 리조트가 들어서게 된 마을을 '전통문화보존지역'으로 지켜내고자 전통 굿을 세우며 고군분투하는 문봉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굿 세워라 금순아'는 우리 전통가락에 랩, 가요, 삼바 등 다양한 리듬을 접목시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 연출/권호성
- 작, 작사/진남수
- 작, 편곡/양승환
- 음악감독/이슬아
- 안무/김준태

무용

창작발레 인어공주

일 시 | 7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수아트컴퍼니 010-9939-1371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K-Arts 발레단의 고품격 명품창작발레 '인어공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은 지난 1996년 개원 후 마린스키발레단의 주역 김기민, 파리오페라단 에투알 박세은을 비롯해 수많은 주역들을 배출한 바 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동명의 동화를 발레무대로 옮긴 '인어공주'는 지난 2001년 초연 이후 예술의전당, 강동아트센터, 마포아트센터 등 국내 주요 공연장은 물론 미국 뉴욕, 이탈리아 등 해외 우수 극장에 초청받아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안무, 예술감독/김선희
- 조안무, 지도/김현웅, 유희웅

영화

2022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술 마시는 인류, 호모바쿠스

일 시 | 7월 1일(금)-3일(일)
영화의전당 소극장, 야외극장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bfff.kr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며 영화 속 음식을 매개로 다양한 푸드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음식영화축제 '2022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첫 번째 섹션 '오! 술이여, 나의 뮤즈여'에서는 영화 '싸나히 순정', '인간실격', '소설가의 영화' 상영을 통해 창작에 있어 술은 뮤즈인가, 독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우리가 만나는 술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섹션 '술술 나오는 이야기, 한 잔의 술에서는 영화 '낮술', '돌아온다', '소공녀', '가을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인 '애주가 열전'에서는 '술 마시는 인류, 호모바쿠스'인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어너더 라운드', '피그', '거룩한 술꾼의 전설'이 상영된다.

(재)영화의전당 2022 야외상영회

일 시 | 7월 6일(수), 20일(수), 27일(수)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80



수영강의 여름 바람과 함께 즐기는 영화의전당 2022 야외상영회. 매년 여름밤 부산시민들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온 2022 야외상영회에서는 최신작품부터 고전영화, 가족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무료로 상영한다. 7월에는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낸 천재 피아니스트 나인틴 헨드레드의 아름답고 순수한 삶을 그린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피아니스트의 전설'(6일), 미국 서부영화의 틀을 깬 세르지오 코르볼리 감독의 '장고'(20일), 그리고 여름 바다에서 영화같은 로맨스를 꿈꾸는 에릭 로메르의 '여름이야기'(27일) 등 고전명작으로 꾸며진다.

콘서트

영도문화예술회관 명작공연시리즈 6
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

일 시 |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5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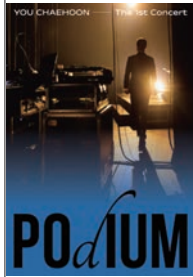
국악과 트로트의 콜라보 공연을 통해 디톡스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음악으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하는 '디톡스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소리꾼 남상일

과 지금까지 전통 소리만으로 외길을 걸어온 젊은 차세대 소리꾼 조용주, 그리고 파워풀한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차세대 트로트계의 아이돌 박구윤, 경연프로그램 '보이스퀸'에서 독보적인 꺾기 실력과 감성을 드러내며 '중년 엘사로 많이 알려진 최연화 등 4명의 연주자가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한다.

라포엠 유채훈의 첫 번째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Podium

일 시 | 7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31일 일요일 오후 4: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전석 12만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JTBC '팬텀싱어3' 우승 팀인 '라포엠'의 멤버로, 팝페라 가수이자 성악가로 활동 중인 유채훈의 첫 번째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라포엠은 전 시즌을 통틀어 유일하게 성악 전공자로 구성된 팀이자, 정통 카운터테너가 포함된 '성악 어벤저스'로 불리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오페라에서부터 가요까지 소화하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오토이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음악과 무대로 관객들과 만나는 유채훈은 그동안 '팬텀싱어 3'의 수많은 경연을 통해 성악은 물론 팝페라,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만큼 다채로운 음악과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III
이탈리아 로마 예술여행

일 시 | 7월 2일(토)-23일(토) 오전 10:00
 (23일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사전신청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와 박물관을 찾아 역사와 예술가들의 삶과 철학을 살펴보는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유럽 4개국을 각 나라별로 해설이 있는 예술강좌와 렉처 콘서트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바티칸 박물관 해설가로 1,000회 이상 해설을 맡았으며, 현재는 음악과 미술, 유럽문화를 융합한 인문학 강사로 활동 중인 김성민이 해설을 맡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로 예술여행을 떠난다.

7월에는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 바티칸 박물관과 보르게세 미술관, 바르베리니 국립미술을 돌아본다.

7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7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독일 낭만파 악곡의 걸작으로 꼽히는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1일(금) 니벨룽의 반지 해설 및 관현악버전 감상
- 8일(금) 제1부 '라인의 황금'
- 15일(금) 제2부 '발퀴레'
- 22일(금) 제3부 '지크프리트'
- 29일(금) 제4부 '신들의 황혼'



7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4일(목)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4일(월) 오후 7:00 인생의 짧음과 행복에 관하여:세네카

- 강사/김남호(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11일(월) 오후 7:00 과정시학—시인과 독자를 위한 시론 공부

- 강사/구모룡(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14일(목) 오전 11:00 낭송과 낭독 그리고 토크. 손음 시집 '누가 밤의 머릿결을 빗질하고 있나'(걷는사람 2021)

18일(월) 오후 7:00 음악, 새로운 향했던 여러 갈래 길
 • 강사/노재봉(작곡가)

25(월) 오후 7:00 부경대 박물관 대마도는 우리 땅인가?

- 강사/이근우(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월드뮤직, 미술과 영화와 詩를 만나다
쿠바음악 편

일 시 | 7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초대(예약순 마감)
 문 의 | 예필 최정욱 010-3853-6634

미술, 음악, 영화 3분야 동시 예술인으로 등재(2022년)된 예필 최정욱이 마련하는 종합대중 예술 렉처 콘서트.

월드뮤직 해설가 및 세계미술 해설가로 활동해 온 최정욱은 그동안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세계미술, 세계영화, 세계의 詩, 세계 역사가 유기적으로 엮인 '월드뮤직, 미술과 영화와 詩를 만나다'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 쿠바영화/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Buena Vista Social Club, 1999, 빔 벤더스 감독
- 쿠바음악/Quizas, Quizas, Quizas(글쎄요, 글쎄요, 글쎄요)-Buena Vista Social Club(1998년 카네기홀 공연 실황 포함 13곡)

쿠바미술/La Jungla 정글, 1943, 위프레도 램 포함 6점

쿠바의 詩/Versos Sencillo 5 소박한 시 5, 호세 마르띠 詩

김옥균의 영광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콘서트 실황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여름학기 2개월(7월, 8월) 10만원
문 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영광클래식 음악감상회' 매주 금요일, 국내외 최신 클래식음악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비발디 '화성의 영감',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베르디 오페라 '나비부인', 헨델 '수상음악',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3번,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줄리아니 기타협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7번

특집 '반젤리스 타계 추모 음악',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황제'

제177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바다, 여름, 주제 詩 낭송회

일 시 | 7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출연/정갈언 시인 외 초대시인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한국현대미술작가조명 IV - 이형구

일 시 | 3월 29일(화)-8월 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 with 마리쿠테 알파벳 동물원

일 시 | 4월 22일(금)-7월 31일(일)
문화플랫폼 시민마당(구 부산진역사)
입장료 | 관람권 6천원
문 의 | 부산동구청 440-4065
•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7:00(오후 6:0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프로젝트 박종우展 부산 이바구

일 시 | 4월 30일(토)-8월 21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금정문화회관 2022 교육전시 현대미술가와 함께하는 새로운 금정

일 시 | 6월 14일(화)-9월 18일(일)
금정문화회관 전시실2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 우리의 일상공간과 풍경을 다양한 현대미술매체로 재해석함으로써, 금정구라는 공간과 지역적 특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망해보는 기획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타워아트갤러리 기획 선면전(부채그림전)

일 시 | 7월 5일(화)-7월 30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미술관의 동물원 종이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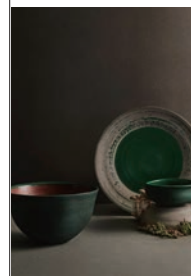
일 시 | 7월 15일(금)-8월 21일(일)
해운대문화회관 제12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2022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기획전. 종이를 통해 새롭게 구현하는 팝업 작품들과 독특한 입체 작품 속 일상과 자연의 따뜻한 감성과 순수함을 담은 전시로, 동물원 만들기, 나의 색 찾기, 설치 미술 공간 포토존 등 세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8:00(매주 월요일 휴관)

권빈 초대개인전 우연적 공존 옷칠도자전

일 시 | 7월 6일(수)-7월 31일(일)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전통적인 옷칠기법을 기반으로, 도자기에 옷칠을 하는 도태칠기 작품을 선보여온 작가 권빈 초대 개인전. 목기나 다른 타 재료에 옷칠을 하는 것과는 다른 도태칠기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해온 권빈 작가는 기면에 다양한 색상의 옷칠을 여러번 겹쳐 바른 후 연마해 문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도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의도와 반복된 행위가 흙과 유약, 옷칠이 서로 상응하면서 기법의 전통성과 우연한 문양, 그리고 재료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미묘한 조화와 대비로 회화적 미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한다.



어른이 먼저 읽는 어린이 클래식

나성인 지음 / 풍월당
344p / 2만 9천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동네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삼촌이 클래식을 녹음한 카세트테이프를 선물했다. 음악은 말없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준 친구였다. 저자 나성인 씨가 아홉 살에 처음 클래식을 만날 때의 일이다. 어린이가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게 짧은 클래식을 녹음한 삼촌의 선물은 저자에게는 마중물이 되어주었다. 이 책은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과 친해진 저자의 경험을 녹여낸 음악 수필집이자 클래식 안내서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알게 모르게 클래식을 만났다는 데 주목한다. 후진하는 트럭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테트리스 게임을 하면서 러시아 민요 '칼린카'를 들었던 이야기는 독자들도 공감하는 재미난 이야기다. 클래식을 생각보다 친숙하게 접해왔었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 그저 잊힌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무심결에 지나쳐 버린 클래식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클래식이 꼭 필요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저자의 안내로 '이름 알기' '친해지기' '넓어지기' '깊어지기' 단계를 지나 클래식과 친해지면 부록 QR북을 펼쳐보자. 141개 QR코드 음원으로 클래식을 들을 수 있다.



파랑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권윤덕 글, 김서영 외 제주 어린이 그림 / 남해의봄날 / 166p / 1만 8천원

제주에는 국내외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섬이다. 제주의 유명 명소를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제주를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주 어린이 33명과 권윤덕 작가가 제주의 자연과 생명을 담은 책을 냈다. 어린이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린 그림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주를 보여준다. <시리둥둥 거미둥둥> <나무 도장> 등 제주를 배경으로 한 그림책을 낸 권윤덕 작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서관친구들(도서관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관한 '세계자연유산마을,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9년에는 선인분고 어린이 15명이 거문오름과 마을 주변 자연과 생명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다. 2021년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성산초등학교 어린이 18명과 성산 일출봉 주변 바다 생태였다. 이 책 속 그림책 '햇빛은 밖에서 놀자고 부르고'는 선인분고 어린이들의 그림을 엮은 것이고, '물고기의 속사정'은 성산초등학교 어린이들 그림이다. 각각의 그림책이 끝나면 권윤덕 작가가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글로 전해준다. 그 결과 두 편의 그림책과 에세이가 어우러진 독특한 형식의 책이 탄생했다. 동심으로 보고 그린 세상이 제주보다 아름답게 다가온다.



새들반점

정훈 지음 / 함향
147p / 1만 2천원

정훈의 시집 <새들반점>을 읽다가 "다음 중 이 시집에 등장하지 않는 부산의 지명은 무엇인가요?"라는 독서퀴즈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의 제목, 시의 구절 곳곳에 부산의 골목이 등장해 읽는 내내 '여기도 가본 곳! 저기도 아는 동네!' 하게 된다. 새들반점은 가톨릭센터 인근에 있는 중화식당 이름이다. 정훈은 200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으로 등단했다. 평론집 <시의 역설과 비평의 진실>, 공저 <지역이라는 이름의 아포리아> 등 여러 권의 책을 냈다. 그동안 평론가로 활동해 왔기에, 이번에 낸 시집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집 속에서 시 <동광동멸치쌈밥집>은 이렇게 시작한다. "백산기념관 맞은편 멸치쌈밥집이 마치 사업등록증처럼 불박혀 있음을 보게 된다. 괴정 순덕이네 시락국집엘 들어가면 류명선 시인의 '순덕이네 시락국'이 출입허가증처럼 벽의 전면을 장식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원리다" 가본 사람들은 "나도 그 시를 그 집에서 읽었지!"라고 말하고,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발길을 향하게 하는 시 구절이다.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집을 썼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자. 시집 안에서 부산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부산시립예술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예술단(607-3110)



부산시립예술단이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부산지역 5개 공연장에서 순회공연을 펼친다.

특히 이번 순회공연은 지난 4월 15일 부산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등 6개 지역 문화회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2년도 부산지역문화회관 공연 활성화 사업 간담회'에서 지역 문화회관 우수공연(창작공연 등) 선정 및 순회공연 추진 논의 후 본격 진행되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그 첫 공연으로 지난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부산시립극단이 제작한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를 영도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린 바 있다. '미운오리새끼(원작/안데르센, 각색/신서영, 작사·연출/김지용, 작곡/진소영)'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가진 장기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 바 있다. 부산시립극단은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에 이어 8월 31일부터는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에서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의 열정을 담은 스타프로젝트로 '몰리 스위니' '두 개의 달' 등 2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몰리 스위니'는 강성우의 객원 연출로 단원 황창기, 이혁우, 오희경이 호흡을 맞추며, '두 개의 달'은 단원 염지선의 첫 연출작으로, 단원 김은옥, 서보기, 이태성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9월 16일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이 동래문화회관에서 '舞樂 고요의 시간'으로 동래구민들과 만난다. '舞樂 고요의 시간'은 황혼에서 새벽까지 자연의 색과 의미를 담은 춤과 음악의 향연으로, 이정윤 예술감독이 중점을 두고 있는 호흡, 접지, 곡선, 명상 등의 춤 기법을 통해 내면의 근원에 집중하는 민속성 강한 작품들인 '운무雲霧' '춘설春雪' '고혹蠶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11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이 금정구민들을 위해 오랜만에 금정문화회관으로 찾아가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영화의전당으로 공연장을 옮겨 신명나는 창작국악곡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2022년 제13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in 경주

부산시립극단 '미운오리새끼'로 참가



경주에서 열리는 '제13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 부산시립극단이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로 참가한다.

7월 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제13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각 지역 국공립극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릴레이로 볼 수 있는 연극 페스티벌로, 올해는 부산시립극단을 비롯해 9개 국공립극단이 참여한다.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극단 '미운오리새끼'는 그동안 시립극단의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백조이면서 오리인 미운오리새끼의 '자아찾기'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업무협약 체결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재)부산문화회관(대표 이정필)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신라대학교(총장 김충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부산문화회관과 신라대학교는 지난 5월 25일 신라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와 신라대학교 김충석 총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지고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와 지원 △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신라대학교가 혁신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산실이 될 문화콘텐츠학과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의 문화예술을 선도해 온 (재)부산문화회관과 더불어 창의성 있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5월 31일에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식이 펼쳐졌다.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상담 등을 제공하며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청소년 단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통해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산시립예술단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 부산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7기 SNS서포터즈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제7기 SNS서포터즈가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7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MZ세대의 관객 개발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재학생들이 서포터즈로 참여한다.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재학생들은 지난 3월, (재)부산문화회관-부경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후 그동안 (재)부산문화회관 홍보영상 및 온라인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홍보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제7기 SNS서포터즈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재)부산문화회관의 주요 행사와 소식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공유, 홍보하며 활동 기간 동안에는 서포터즈들에게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등 일부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재)부산문화회관 2022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이 운영하는 2022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가 7월 4일 개강한다. 그동안 차별화된 컬리큘럼과 우수한 강사진으로 종합적인 아카데미로 성장해온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온 인문·교양 강좌를 비롯해 다양한 실기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인문·교양 강좌에서는 지난 2분기 아카데미에서 첫선을 보여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음악으로 떠나는 유럽 그랜드 투어’의 새로운 여정인 ‘다시 떠나는 유럽 음악 여행’을 만날 수 있다. 작곡가이자 영화음악가인 김상헌 강사가 안내하는 이번 강좌는 유럽 각지에서 찬란한 음악의 꽃을 피웠던 위대한 작곡가의 여정을 따라, 그들의 걸음이 곧 음악의 새로운 역사였던 그 길에서 만난 새로운 풍경과 만남을 소개한다. 미술평론가 장원 강사의 흥미로운 미술사 수업 ‘Artistic Fantastic 미술사’는 서양미술사를 연대기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번 분기에서는 2차 대전 이후 현대미술을 새로운 예술운동 중심으로 살펴보며 작품 감상을 통해 현대미술의 난해함을 해소해본다. 음악평론가 이용숙 강사의 ‘클래식 명작 100선’은 바로크 시대(1600~1750년경)에 탄생한 주요 작품을 연대순으로 감상하며 바로크 음악이 장르별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나라별로 어떤 음악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밖에 매년 여름이면 음악, 연극축제로 활기를 띠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생생한 예술현장을 소개하는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소설을 통해 영국 런던을 돌아보는 ‘함정임의 무엇보다 소설을:소설로 떠나는 런던 여행’도 수강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북 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김효은 작가는 연간 프로젝트 ‘우리들의 백과사전’ 프로그램을 지난 분

기에 이어 계속 진행한다. 이번 두 번째 시리즈 ‘여행’편에서는 우리의 취향을 바탕으로 꼭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 공유하며 서로의 여행스토리를 만들어 세상에 하나뿐인 책을 제작해본다. 그가 진행하는 또 다른 강좌인 ‘일러스트 드로잉:Summer’는 일러스트레이션 본래의 역할이었던 책의 삽화로써의 기능과 의미를 되짚어보는 강좌로, 여름을 표현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주제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본다. 또,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내 안의 창조성을 일깨우는 김은주 작가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사진작가 뿌리야 김과 함께하는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부산시립극단 단원 김은희의 연기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부터 연극!’, 지휘자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휘법 테크닉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나주시립합창단 전진 지휘자의 ‘지휘자 클래스’ 등도 마련되어 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기강좌도 올해 계속된다. 쉽게 접하기 힘든 가야금, 거문고, 해금을 비롯해 바이올린, 첼로, 클래식 기타, 발레, 현대무용, 라인댄스 등 다채로운 강좌를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 지역의 우수한 강사들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특히 사물놀이 강좌의 경우 이번 분기부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이자 부산시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주현이 강사로 새롭게 참여한다. 이 밖에 7월 9일부터 시작되는 부산 최초의 앙리 마티스展인 ‘앙리 마티스_Life & Joy’의 전시연계 특강과 아트콘서트가 전시기간 동안 총 5차례 개최된다.

이번 강좌의 수강신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및 방법: 홈페이지 www.bscc.or.kr(아카데미 > 수강신청), 6. 13(월) ~ 선착순

문의: 051)607-6000

인문·교양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전시 프리뷰 특강	6. 26	일(1회)	14:00-15:30	챔버홀	5,000
앙리 마티스, 20세기 현대미술의 문을 열다!	7. 16	토(1회)	14:00-15:30	챔버홀	회차별 10,000 패키지 30,000
남프랑스, 마티스의 흔적을 찾아서: 마티스미술관과 그의 친구들	8. 6	토(1회)	14:00-15:30	챔버홀	
앙리 마티스, 파리 패션을 매혹하다♥	8. 9	화(1회)	14:00-15:30	챔버홀	
종교와 미술의 만남 앙리 마티스, 신의 집을 짓다: 방스 로사리오 경당의 탄생	9. 14	수(1회)	14:00-15:30	챔버홀	
아트콘서트 마티스가 사랑한 음악	10. 1	토(1회)	16:00-18:00	챔버홀	15,000
함정임의 무엇보다 소설을: 소설로 떠나는 런던 여행	8. 29 ~ 9. 26	매주 월(4회)	19:00-21:00	강의실	80,000
마음으로부터 연극!	7. 4 ~ 9. 19	매주 월(10회)	19:00-21:00	연습실	12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초급)	7. 4 ~ 9. 19	매주 월(10회)	10:30-12:30	아트랩	18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응용)	7. 4 ~ 9. 19	매주 월(10회)	14:00-16:00	아트랩	180,000
전원경의 〈예술, 도시를 만나다〉	7. 5 ~ 9. 6	매주 화(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일러스트 드로잉: Summer	7. 5 ~ 9. 6	매주 화(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이용숙의 클래식 명작 100선	7. 6 ~ 9. 7	매주 수(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Creative 북바인딩: 우리들의 백과사전 〈여행편〉	7. 6 ~ 9. 7	매주 수(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7. 7 ~ 9. 22	매주 목(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김상헌의 〈다시 떠나는 유럽 음악 여행〉	7. 8 ~ 9. 16	매주 금(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지휘자클래스	7. 8 ~ 9. 16	매주 금(10회)	19:30-21:30	강의실	36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현대미술사	7. 9 ~ 9. 17	매주 토(10회)	14:00-16: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응용)	7. 9 ~ 9. 17	매주 토(10회)	10:00-12: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초급)	7. 9 ~ 9. 17	매주 토(10회)	15:00-17:00	강의실	150,000
실기(악기·무용)					
프리미엄 발레	7. 4 ~ 9. 19	매주 월(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바이올린 A	7. 4 ~ 9. 19	매주 월(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바이올린 B	7. 4 ~ 9. 19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거문고 A	7. 11 ~ 9. 26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초급)	7. 5 ~ 9. 6	매주 화(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풍류 장고)	7. 5 ~ 9. 6	매주 화(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사물놀이	7. 5 ~ 9. 6	매주 화(10회)	17:30-19:00	연습실	120,000
춤추는 현대무용(응용)	7. 5 ~ 9. 6	매주 화(10회)	19:30-20:50	연습실	100,000
해금(중급)	7. 5 ~ 9. 6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가야금 A	7. 5 ~ 9. 6	매주 화(10회)	17:30-19:00	레슨실	140,000
가야금 B	7. 5 ~ 9. 6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7. 6 ~ 9. 7	매주 수(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소고춤)	7. 6 ~ 9. 7	매주 수(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거문고 B	7. 6 ~ 9. 7	매주 수(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중급)	7. 7 ~ 9. 8	매주 목(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기초)	7. 14 ~ 9. 15	매주 목(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해금(초급)	7. 7 ~ 9. 8	매주 목(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춤추는 현대무용(초급)	7. 7 ~ 9. 8	매주 목(10회)	19:30-20:50	연습실	100,000
클래식기타(입문)	7. 8 ~ 9. 16	매주 금(10회)	10:30-12:0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중급)	7. 8 ~ 9. 16	매주 금(10회)	14:00-15:3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초급)	7. 8 ~ 9. 16	매주 금(10회)	16:00-17:30	레슨실	120,000
첼로 A	7. 9 ~ 9. 17	매주 토(10회)	11:00-12:30	레슨실	240,000
첼로 B	7. 9 ~ 9. 17	매주 토(10회)	13:00-14:30	레슨실	240,000

※ 강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CC PROGRAM

2022.6-9월
June-September

(재)부산문화회관 2022 3분기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클래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5. 6.(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문화 | 중극장 2022. 8. 19.(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첸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세계 3대 국제콩쿠르 우승자들의 첼로 협연
**<2022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문화 | 대극장 2022. 9. 14.(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세계적 마에스트로가 선사하는 음악 선물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21.(수) 7:30pm
V 120,000원 R 100,000원 S 80,000원 A 6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연극·뮤지컬

과도한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극단 들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2022. 5. 19.(목)-20.(금)
목 2:00pm /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그 날 불행이 다가왔다...
빅픽처스스테이지 <코마>

시민 | 소극장 2022. 6. 10.(금)-11.(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문화 | 중극장 2022. 7. 8.(금)-9.(토)
금 7:30pm / 토 2:00pm 6:00pm
R 60,000원 S 40,000원
※만 11세 이상 관람



창작뮤지컬 최고 화제작의 귀환
뮤지컬 <팬레터>

시민 | 대극장 2022. 7. 30.(토)-31.(일)
토 6:00pm / 일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만 14세 이상 관람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문화 | 중극장 2022. 9. 23.(금)-24.(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발레·무용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문화 | 중극장 2022. 3.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 연령 관람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 숨 쉬는 희극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2. 5. 13.(금)-14.(토)
금 7:30pm / 토 3:00pm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시민 | 대극장 2022.9.29.(목)-10.1.(토)
목, 금 10:00a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3세 이상 관람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 Beyond the Magic**

시민 | 대극장 2022. 5. 21.(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국악·전통

김준수 & 하윤주 & 두번째달과 함께 떠나는
팔도유람 음악여행
**김준수, 하윤주, 두번째달
<팔도유람>**

문화 | 중극장 2022. 4. 17.(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요절복통 뮤지컬로 읽는 세계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

문화 | 사랑채 2022.7.2.(토)-8.28.(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2세 이상 관람



지금, 여기에 다시 살아난 수궁가
**국립창극단
<귀도>**

시민 | 대극장 2022.8.12.(금)-13.(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 똘똘를 찾아라>

문화 | 대극장 2022.8.20.(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환경을 이야기하는 마법 같은 퍼포먼스
<에코백>

문화 | 사랑채 2022.9.15.(목)-10.9.(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4세 이상 관람



콘서트

가장 핫한 아티스트를 셀렉하는 가장 트렌디한 콘서트
**<SELECT SHOP ;
셀렉콘 - 십센치 X 소수빈> - 부산**

시민 | 대극장 2022.6.11.(토). 6:00pm
V 121,000원 R 99,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C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 4. 27.(수), 5. 25.(수), 6. 29.(수)
매주 수요일 7:30pm
무료



가족·어린이

팔죽 한 그릇이 건네는 맛있는 지혜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합법과 호랑이>**

문화 | 사랑채 2022. 2. 19.(토)-4. 3.(일)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지역프로젝트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2022. 4. 22.(금)-5. 20.(금)
9. 23.(금)-10. 14.(금)
매주 금요일 12:20pm
무료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극단 영 <비발디의 사계>

문화 | 사랑채 2022. 4. 6(수)-5. 6.(금)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2022 하반기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문화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광현 | 작곡 노재봉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선욱 | 소프라노 한재민



기획연주회

실내악공장 2

문화 | 챔버홀 2022. 8. 12.(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202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문화 | 대극장 2022. 9.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 소프라노 이명주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5

문화 | 대극장 2022. 9. 22.(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9.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6

문화 | 대극장 2022. 10. 6.(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

문화 | 대극장 2022. 10. 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신창용



기획연주회

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10. 13.(목) 7:30pm
전석 2,000원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7

문화 | 대극장 2022. 11. 1.(화) 7:30pm
전석 5,000원



제593회 정기연주회

회갑(回甲)

문화 | 대극장 2022. 11. 2.(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 오르간 신동일



기획연주회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11. 17.(목) 9:00pm
전석 5,000원



제5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2022. 12.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윤한결 | 바이올린 임재홍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8

문화 | 중극장 2022. 12. 22.(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5회 정기연주회

동반자

문화 | 중극장 2022. 12.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황수미 | 호른 이석준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2310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김지용 | 안무 박근태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무용 더파크댄스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전석 10,000원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 5,000원
지휘 이기선 |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악칸타타 '일향악세계기'

문화 | 대극장 2022. 7. 8.(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남량특집 '미스터리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7. 27.(수)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작·편곡 박한규, 이경은



특별연주회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8. 19.(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모듬북 허정욱
합창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217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향연

문화 | 중극장 2022. 9. 20.(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18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I

문화 | 중극장 2022. 10. 7.(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River Dance 프로젝트

문화 | 대극장 2022. 12. 1.(목)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연출안무 이정윤
작곡 이경은 | 무용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평일 80:00pm, 주말 5:00pm
안무 이정윤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II

문화 | 대극장 2022. 10. 21.(금)·23.(토)
평일 80:00pm, 주말 4:00pm, 8:00pm
R 30,000원 S 20,000원
안무 이정윤



특별공연
안무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평일 8:00pm, 주말 5:00pm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시작-HAMLETique

문화 | 중극장 2022. 7. 15.(금)-17.(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재구성 연출 강태욱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1 '올리 스위니'

해운대문화회관 2022. 8. 31.(수)-9. 2.(금)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브라이언 프리엘 | 객원연출 강성우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시민 | 소극장 2022. 9. 20.(화)-24.(토)
평일 10:30am, 14:00pm(단체관람 공연),
토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이보람 | 객원연출 최용혁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2 '두 개의 달'

해운대문화회관 2022. 9. 6.(화)-7.(수)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임은재 | 연출 염지선(단원)



제73회 정기공연
장막희곡 당선작

문화 | 대극장 2022. 11. 25.(금)-26.(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With

문화 | 챔버홀 2022. 7. 30.(토) 5:00pm
무료



제68회 정기연주회
Com Spirito(활기있게)

문화 | 대극장 2022. 9. 6.(화) 7:30pm
전석 2,000원
지휘 이명근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10. 25.(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2022. 11. 5.(토) 5:00pm
무료



제69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12. 6.(화) 7:30pm
전석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문화 | 대극장 2022. 9. 17.(토) 5:00pm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4.(금)-5.(토)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 | 대극장 2022. 12. 10.(토)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호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116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VIP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116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

부산문화회관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와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월 30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5월 6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 Beyond the Magic

5월 21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XXL 레오타드 만나수이 손거울’

5월 20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월 13일(금)-14일(토) 금 오후 7:30, 일 오후 3:00 **종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6월 10일(금)-11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종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7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V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9월 3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7월 8일(금)-9일(토) 금 오후 7:30 **종료**
토 오후 2: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창작뮤지컬 최고 화제작의 귀환 '팬레터'

7월 30일(토)-31일(일) 토 오후 6:00, 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국립창극단 <귀토>

8월 12(금)-13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8월 19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띠를 찾아라

8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9월 23일(금)-24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9월 29일(목)-10월 1일(토)
목·금 오전 10:0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時代가 人間

에게
던지는 질문



10 人間 10 界 밖



문의 채널

2022년 부산시립극단 장막 희곡 공모

응모자격

제한없음 (단, 미발표 순수 창작품에 한함)

공모부분

창작 희곡 (원고지 250매 이상으로 대극장 공연이 가능한 작품)

접수기간

2022. 7. 11.(월) ~ 7. 29.(금) 17:00까지

제출서류

[별지1] 공모 신청서 1부

[별지2] 작품의도 및 줄거리 1부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4] 창작 희곡 원고 1부

(한글파일 혹은 워드파일로 표지 작성 후 함께 제출)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0308side@bscc.or.kr

우 편 접 수: 2022. 7. 29.(금)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단, 공모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로 마감시간 엄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848-4)

부산시립예술단 시립극단 담당자 박지현 앞

최종발표

2022년 8월 중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 및 개별 유선통보

시상내역

당선작 1편 상금 3,000만 원

*시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부담

유의사항

- 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당선 취소 및 표창, 수상금 회수 조치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응모한 원고 및 자료에 대한 반환 및 비용청구 불가능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기 예정)
- 공연 제작시, 필요에 따라 작품 수정/변경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시 수상하지 않음

문의

- 부산시립극단 051)607-3127
- E-mail : 0308side@bscc.or.kr

589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BPO PLAYS DVOŘÁK

프라하 중악역

지휘 김선욱
첼로 한재민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 / 교향곡 제7번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창단6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R20,000원 S15,000원 A10,000원 B5,000원
문의 051-607-8000(ARS 7번)

www.bscc.or.kr

WORLD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
피아니스트 홍민수



COMPETITION

듀오 리사이틀

WINNER



SERIES III

| 주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 티켓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인터파크 티켓(1544-1555)

2022. 7. 22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NOVUS

노부스콰르텟 오직 베토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QUARTET ONLY BEETHOVEN

2022 / 08 / 19 / FRI 19: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Jino Park

입장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주최  한국문화예술기관연합회
Korea Culture and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맛집 BSCC

♥ 💬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SCC #사진맛집
#BSCC사진맛집 #부산문화회관야외 #포토존

여러분이 포착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아름다운 장면과 공간들을 공유해주세요!
주제에 맞는 곳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풍경 등을 담아도 되고, 여러분의 멋진 포즈를 담아도 좋습니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매회 주제에 맞는 멋진 사진을 공유해주시는
5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1 이벤트 기간 2022년 5월 30일(월)~7월 15일(금)

🌲 포토존 주제 부산문화회관 야외

📷 참여 방법 인스타그램 피드 내 개별 사진 업로드
※ 관련 해시태그 필수: #BSCC사진맛집 #부산문화회관야외

🎁 당첨자 발표 - 총 5명 발표(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예술의초대 8월호 및 SNS채널 내 당첨자 발표

⚠️ 유의 사항 - 제출 사진의 규격 및 해상도 제한 없으나 인스타그램 채널 내에서 허용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당첨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원본 사진파일 발송 필수
- 해당 이벤트에 당첨된 사진은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 및 <예술의초대>에 게재, 사용될 수 있음
- 당첨 상품은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되며, 상품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이벤트에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음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 051-607-6126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7.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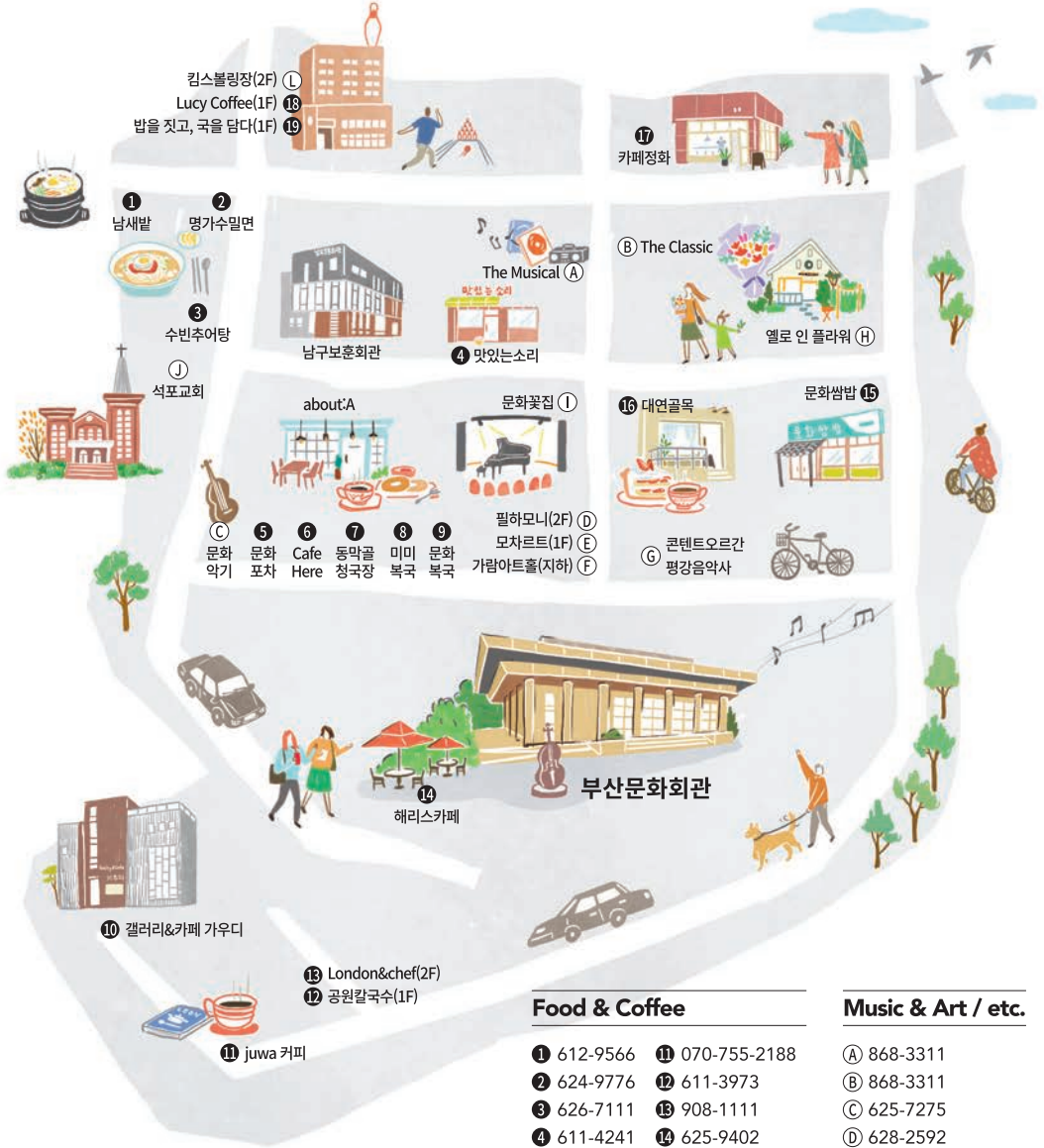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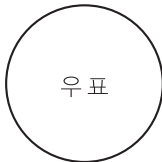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INVITATION TO THE ARTS
2022 7 JULY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2022 찾아가는 국립극장 선정작

토끼의 팔랑 八難



자
자
자



2022. 8. 12 金 7:30pm - 8. 13 土 3: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티켓가격 |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제작 |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국립창극단

극본·연출 고선웅

공동작창 유수정·한승석

작곡·음악감독 한승석

출연진

토자 김준수

자라 유태평양

토너 민은경 외 국립창극단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1번)

인터파크 1544-1555